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 연구

박대식 명예선임연구위원
조승연 부연구위원
김정승 연구원



KREI

연구 담당

박대식 | 명예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장, 제3장~제5장 집필

조승연 | 부연구위원 | 제2장 집필

김정승 | 연구원 | 제3장 집필

수탁연구보고 C2020-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빗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연구 목적

- 농촌 결혼이민여성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이끌어 나아갈 핵심적인 인적자원임. 따라서 농촌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인력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농촌 정착 지원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 중임.
- 결혼이민여성 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음.
- 농촌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정착 장기화에 따라 가족구성원, 지역사회 정착수준 등 변화된 정착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교육방향을 제시하며,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지난 10년간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관, 교육생 등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③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① 기존 자료 조사, 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기존 통계,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③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교재, 교과과정 등에 대한 분석, ④ 설문조사(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303명 대상), ⑤ 심층면접(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농업교육 강사 및 사업 담당자 등 총

21명 대상), ⑥ 초점집단면접(총 3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⑦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임.

연구 결과

○ 농촌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353,803가구이며, 이중 도시 다문화 가구가 77.2%, 농촌 다문화 가구가 22.8%임.
-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1,062,423명이며, 이중 도시 다문화 가구원 수가 74.5%, 농촌 다문화 가구원 수가 25.5%임.
- 2011년부터 전체 농가 및 다문화 농가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나, 전체 농가 대비 다문화 농가의 구성비는 1.2%~1.3% 정도로 유지됨.
-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다문화 가구원 중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138,773명임. 이중 도시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103,894명(74.9%)이며,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34,879명(25.1%)으로 집계되었음.
-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39.7%), 중국(14.7%), 한국계 중국(10.8%), 필리핀(9.2%), 일본(8.2%) 순이었음.
- 도시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농촌 결혼이민여성은 저 연령이거나, 출신국가에서 받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도시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동남아시아 출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농촌 결혼이민여성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도시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및 사회서비스 수혜의 경우 전반적으로 농촌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도시 결혼이민여성의 수혜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 현행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대한 성과 평가 지표는 ‘교육 수료 인원’과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임.
- 2009~2019년 기간 동안에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여성은 총 16,104명이며, 계획 대비 13.3%를 초과 달성하였음.
- 2009~2019년 기간 동안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는 기초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육생 모두 84% 이상 수준(다만, 2011년 맞춤형 농업교육 만족 비율은 71.9%이었음)으로 나타나 교육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2020년) 결과에 따르면, 기초(단계별) 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의 90% 이상이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련 우수사례는 전문영농, 6차 산업화, 지역사회 참여 부문으로 나누어 총 10가지 사례를 정리하였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① 교육과정 전반, ② 교재 관련, ③ 교육방식 관련, ④ 농업교육 담당 강사 및 후견인 관련, ⑤ تاک아와 교통편 관련, ⑥ 기타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관, 교육생 등의 요구사항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관, 교육생 등의 요구사항은 ① 교육과정 전반(예산 관련, 성과지표 관련, 필수·선택과정 관련, 교육생 모집 관련, 성과지표 관련), ② 교재 관련(교재의 개정, 번역판 교재), ③ 교육방식 관련(실습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교육 시기 및 시간), ④ 농업교육 담당 강사 및 후견인 관련, ⑤ 택아와 교통편 관련, ⑥ 기타(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농협 담당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결혼이민여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로 정리하였음.

정책 제언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의 목적 및 위상 재정립, 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전국적 확산 기반 마련,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업교육의 강화를 제시하였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으로는 ① 성과지표의 조정, ② 교과과정의 개편 및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마일리지제도의 도입, ③ 교재의 개정 및 번역, ④ 다양한 부교재의 개발·보급, ⑤ 교육방식의 개선(실습교육의 개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기반 조성 및 단계적 도입, 교육 시기 및 시간의 탄력적 운영), ⑥ 택아와 교통편 지원(보육도우미 배치 확대 및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활용, 단계별 농업교육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의 택아시설에 대한 물품 지원, 셔틀버스 또는 교통도우미 지원), ⑦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 ⑧ 결혼이민여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⑨ 기타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8
4. 연구 방법	9

제2장 농촌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1. 농촌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여성의 일반적 현황	9
2.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인구·경제·사회적 특성	32
3. 소결	40

제3장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1. 사업의 개요	43
2. 운영 성과	54
3. 문제점	76
4. 소결	96

제4장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관, 교육생 등의 요구사항

1. 교육과정 전반	99
2. 교재 관련	102
3. 교육방식 관련	104
4. 농업교육 담당 강사 및 후견인 관련	106
5. 택아와 교통편 관련	106
6. 기타	107

제5장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

- 1. 기본방향 109
- 2. 개선방안 111

부록

- 부록 1.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121
- 부록 2.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129
- 부록 3.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초점집단(FGI)
토론 사항 137
- 부록 4.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 지침 140

참고문헌 159

표 차례

제1장

<표 1-1>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2	1
<표 1-2>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3	1
<표 1-3> 제1차 심층면접(고산농협) 대상자	4	1
<표 1-4> 제2차 심층면접(남평농협) 대상자	5	1
<표 1-5> 제3차 심층면접(팔영농협) 대상자	5	1
<표 1-6> 제1차 초점집단면접(백운농협) 대상자	6	1
<표 1-7> 제2차 초점집단면접(함양농협) 대상자	7	1
<표 1-8> 제3차 초점집단면접(진천농협) 대상자	7	1

제2장

<표 2-1> 다문화 가구 수의 현황	0	2
<표 2-2> 다문화 가구원 수의 현황	1	2
<표 2-3> 다문화 농가의 현황	2	2
<표 2-4> 성별 결혼이민자 현황	3	2
<표 2-5> 결혼이민여성의 연령 현황	4	2
<표 2-6>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가 분포	5	2
<표 2-7> 결혼이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	6	2
<표 2-8> 결혼이민여성의 혼인 상태	7	2
<표 2-9> 결혼이민여성의 교육 연수	8	2
<표 2-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수준	9	2
<표 2-11> 결혼이민여성의 주관적 건강 상태	9	2
<표 2-12> 결혼이민여성의 가구 형태	0	3
<표 2-13> 결혼이민여성의 가구 소득	1	3
<표 2-14> 결혼이민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여부	2	3
<표 2-15>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3	3

<표 2-16> 결혼이민여성의 월평균 임금	3 3
<표 2-17> 결혼이민여성의 직업 분류	4 3
<표 2-18> 결혼이민여성의 생활 만족도	5 3
<표 2-19> 결혼이민여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	6 3
<표 2-2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차별 경험	7 3
<표 2-21> 결혼이민여성의 교육 및 지원서비스 수혜	8 3
<표 2-22>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시설 이용 경험	9 3
<표 2-23>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참여	0 4

제3장

<표 3-1> 결혼이민여성 단계별(기초과정) 농업교육의 내용(2020년)	8 4
<표 3-2> 결혼이민여성 단계별(심화과정) 농업교육의 내용(2020년)	9 4
<표 3-3>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내용(2020년)	1 5
<표 3-4>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세부사업별 교육계획 인원 및 실적	5 5
<표 3-5>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세부사업별 교육 예산 및 결산	6 5
<표 3-6>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1인당 비용	7 5
<표 3-7>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시간당 비용	8 5
<표 3-8> 광역 단위 지역·연도별 교육 인원	9 5
<표 3-9> 광역 단위 지역·연도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실시 농협	2 6
<표 3-10> 사회경제적 특성별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67
<표 3-11> 사회경제적 특성별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67
<표 3-12> 사회경제적 특성별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의 도움 정도	9 6
<표 3-13> 사회경제적 특성별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도움 정도	0 7
<표 3-14>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교재에 대한 어려움(복수응답)	9 7

<표 3-15> 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재에 대한 어려움(복수응답)	0 8
<표 3-16> 사회경제적 특설별 기초(관계별) 농업교육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의 비중에 대한 의견	8
<표 3-17> 사회경제적 특성별 기초(단계별)농업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부분적인 도입에 대한 의견	88
<표 3-18> 기초(단계별)농업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부분적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	8
<표 3-19>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참여시 타아 해결방법(복수응답)	3 9
<표 3-20> 1:1 맞춤형 농업교육 참여시 타아 해결방법(복수응답)	3 9
<표 3-21>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참여시 교통편 해결방법(복수응답)	4 9
<표 3-22> 1:1 맞춤형 농업교육 참여시 교통편 해결방법(복수응답)	5 9

제2장

<그림 2-1> 연도별 다문화 가구 수	12
<그림 2-2> 연도별 다문화 가구원 수	22
<그림 2-3> 성별, 도·농간 결혼이민자 수	32

제3장

<그림 3-1>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추진체계	54
<그림 3-2>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의 운영체계(2020년)	64
<그림 3-3>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운영체계(2020년)	25
<그림 3-4> 기초농업교육 만족도(2010~2019년)	46
<그림 3-5> 1:1 맞춤형 농업교육 만족도(2010~2019년)	56
<그림 3-6>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66
<그림 3-7>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66
<그림 3-8>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의 도움 정도	86
<그림 3-9>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의 도움 정도	07
<그림 3-10> 본국 언어로 서술된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교재 이용 여부	38
<그림 3-11> 본국 언어로 서술된 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재 이용 여부	48
<그림 3-12>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서 이론과 실습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	85
<그림 3-13>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부분적인 도입에 대한 의견	87

제4장

<그림 4-1> 본국 언어로 서술된 교재의 농업교육 도움 정도	301
--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결혼이민여성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박대식·최경은 2008; 박대식 외 2011; 김이선 외 2018).
- 농촌 결혼이민여성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이끌어 나아갈 핵심적인 인적자원임.
- 따라서 농촌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인력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농업인력 육성·정착지원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 중임.
 - 기초농업교육·맞춤형 영농교육 및 농촌사회 정착교육 등을 진행

- 결혼이민여성 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음.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정착 현황 파악도 전국 또는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
- 그러므로 농촌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정착 장기화에 따라 가족구성원, 지역사회 정착수준 등 변화된 정착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이 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관, 교육생 등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사업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지난 10년간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관, 교육생 등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③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1. 결혼이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에 참고할 만한 결혼이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주요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음.
- 김일란(2006)은 결혼이민여성 부부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① 성공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발음 교육의 확대, ② 결혼이민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수업방식의 개발, ③ 다중 교수요목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구조적인 측면과 사용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한국어 교재의 개발, ④ 다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어 학습 능력 향상

○ 정해숙 외(2012)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어교육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집합 및 방문 한국어교육 개선방안,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재 개선방안을 제시함.

○ 최주열(2015)은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음.

○ 김선정(2018)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데 적합한 맞춤형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결혼이민자 맞춤형의 특수 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 최승호(2019)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 중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이민여성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음.

-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영역은 부모로서의 자기관리였음.

2.2.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

- 이순형 외(2006)에 따르면,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에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9%가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응답자의 65.1%는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응답함.
- 오승영(2007)은 농촌 다문화가족을 생활농업인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다문화가족이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며, 최종 단계에서 농가의 경영주체로서 스스로 농업을 즐겁고 보람 있는 일로서 생각하는 적극적인 여성농업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박대식·최경은(2008)은 결혼이민자의 영농 참여와 영농교육 실태를 조사하였음.
 -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와서 농사기술을 배운 대상은 가족이 90.8%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의 영농교육 참여의사는 26.3%임.
 - 결혼이민자가 원하는 영농교육 내용(복수응답)은 일반 농작물 재배기술(54.3%), 인터넷 검색 및 정보처리 기술(36.2%), 농기계 운전기술 및 안전(27.6%) 순이었음.
- 강혜정(2009)은 전국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남편이 농업인인 결혼이민여성의 영농활동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영농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편과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가장 필요함.
- 박대식 외(2011)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의 86.5%는 농어업 일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농어업 참여 정도는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여성은 농어업일은 집안 일이 많아서 부담되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으로 나타남.

○ 안성훈(2012)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닝(e-Learning)를 통해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① 이러닝 교육과정을 국적별로 편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② 이러닝 교육내용을 한국어교육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안, ③ 결혼이민자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 마련 방안

○ 정은미 외(2014)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의 47.6%가 결혼 전에 농사일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 여성농업인 농가의 주력 품목은 논벼(35.6%), 노지채소(23.7%), 일반 밭작물(15.9%), 과수(10.5%) 순임.

○ 김복태 외(2016)는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사회적 관계의 부족, 낮은 한국어 수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화 총괄 기관의 부재 등이라고 주장함.

○ 김복태(2017)는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여성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맞춤형 농업교육의 경우, 1대 1 맞춤형 교육에서 3인 1조 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가 능통한 같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여성을 1대 1 맞춤형 농업교육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2.3.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사회조사 및 연구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회조사 및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음.

○ 농협경제연구소(2010a)는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들

의 만족도와 애로사항을 조사하였음.

- 전체 응답자의 94.0%가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농업교육의 개선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육, 탁아지원, 교통편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농협경제연구소(2010b)는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 농업교육’에 대한 이민여성농업인들과 농업교육 후견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음.

- 이민여성농업인 응답자의 91.4%가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 농업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교육 후견인 전체 응답자의 90.2%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평가함.
- 젊은 이민여성농업인의 자녀 탁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농업교육 후견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영농교육과 이민여성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함.

○ 강혜정(2011; 2012; 2013)은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 농업교육’과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의 교육 수혜자와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음.

- 이민여성농업인 농업교육 개선방안으로 농업교육의 단계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편의 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농업교육 이수자의 영농정착 지원 확대, 교육생 및 교육멘토 네트워크 확대, 교육생 사후관리 강화를 강조함.

○ 한국농식품정책학회(2014)는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 농업교육’과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의 교육 수혜자와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만족도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으로 단계적 농업교육 확대,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육생 사후관리 강화를 강조하였음.

○ 퍼포먼스웨이컨설팅(2015; 2016; 2017)은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과 이민여성 1:1 맞춤 농업교육의 교육생 및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으로 단계적 농업교육의 확대,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육생 네트워크 형성 및 사후관리 강화, 교육생을 위한 편의 서비스 지원 강화, 이민여성 농업교육 홍보의 확대, 교재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 교육참여 성과 활용 등을 제시하였음.

○ NICE Research & Consulting(2018) 및 NICE 디앤알(2019)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경험한 이민여성들(피교육자)과 후견인의 교육 만족도, 농업교육 담당자들의 교육운영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 결혼이민자 기초농업은 응답 교육생의 84%~85%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완해야 할 것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장 실습 위주 교육 강화 등을 강조함.

- 이민여성 1:1 맞춤 농업교육은 응답 교육생의 85% 가량, 그리고 응답 후견인의 80%~85%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완해야 할 것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등을 강조함.

2.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결혼이민여성 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한국어교육에 집중되었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문제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별로 없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사회조사나 연구들도 당해 연도의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많았음.
- 본 연구는 ① 지난 10년간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관, 교육생 등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③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음.
- 더구나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장기화, 자녀성장 등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분명한 차별성이 있음.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 결혼이민여성은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여성을 지칭함.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은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기초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의미함.

3.2. 연구의 주요 내용

- 농촌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 － 농촌 다문화 가구의 현황, 다문화 농가의 현황, 결혼이민여성의 연령 및 출신국 분포,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인구·경제·사회적 특성 등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 10년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 수료생, 교육생, 농업교육 참여 농협 등의 교육운영 현황, 교육 참여자 인터뷰, 우수 사례 발굴 및 분석 등

○ 교육생, 교육기관 등의 애로·요구사항

- 교육운영기관 및 교육생 대상 심층면접·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점, 문제점 등을 조사
- 교육생 대상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거주 여건에 따른 욕구 및 정착 성공요인 도출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

- 정착기간 장기화, 가족구성원 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향 제시
-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전문 인력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시
-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시

4.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① 기존 자료 조사, 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기존 통계,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③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교재, 교과과정 등에 대한 분석, ④ 설문조사, ⑤ 심층면접, ⑥ 초점집단면접(FGI), ⑦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임.

○ 기존 자료 조사

- 국내의 관련 기관 자료
- 외국의 관련 기관 자료

- 국내외 문헌 자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기존 통계,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 결혼이민여성 교육만족도 조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교재, 교과과정 등에 대한 분석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관련 각종 교재, 교과과정 등을 분석함.

○ 설문조사

- 조사 대상: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303명(기초-단계별농업교육 이수 교육생 152명, 1:1 맞춤형 농업교육 이수 교육생 151명)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의 의견은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FGI), 기존의 결혼이민여성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였음.

-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조사 기간: 2020년 11월 1일~12월 10일

-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표 1-1>: ① 거주 지역은 충청권(36.2%), 호남권(27.6%), 영남권(15.8%) 순이었음. ② 평균 연령은 37.1세이며, 연령 분포는 30대(48.0%), 40대(20.0%), 20대 이하(17.3%) 순이었음. ③ 가족 유형은 '부부+자녀'(45.1%), '부부+자녀+시부모'(43.0%) 순이었음. ④ 출신 국적은 베트남(38.2%), 필리핀(28.9%) 순이었음. ⑤ 학력은 '중졸 이하'가 26.8%, '고졸'이 47.7%, '전문대 졸업'이 18.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6.7%이었음. ⑥ 평균 한국 거주기간은 약 11년이고, '5~10년 미만'(27.8%), '10~15년 미만'(26.4%) 순이었음. ⑦ 한국어 실력은 '보통이다'(46.0%), '잘하는 편이다'(34.7%), '못하는 편이다'(13.3%) 순이었음. ⑧ 본국에서 농사 경험은 '경험이 전혀 없다'(48.3%), '경험이 약간 있다'(38.2%), '경험이 많다'(13.4%) 순이었음.

-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표 1-2>: ① 거주 지역은 호남권(72.9%), 영남권(13.9%) 순이었음. ② 평균 연령은 38.1세이며, 연령 분포는 30대(53.0%), 40대(22.1%), 20대 이하(12.8%), 50대 이상(12.1%) 순이었음. ③ 가족 유형은 ‘부부+자녀’(50.3%), ‘부부+자녀+시부모’(40.4%) 순이었음. ④ 출신 국적은 베트남(47.7%), 필리핀(15.2%) 순이었음. ⑤ 학력은 ‘중졸 이하’가 30.5%, ‘고졸’이 57.6%, ‘전문대 졸업’이 7.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4.6%이었음. ⑥ 평균 한국 거주기간은 약 11.6년이고, ‘10~15년 미만’(38.0%) ‘5~10년 미만’(31.3%) 순이었음. ⑦ 한국어 실력은 ‘잘하는 편이다’(43.1%), ‘보통이다’(38.4%), ‘못하는 편이다’(9.9%) 순이었음. ⑧ 본국에서 농사 경험은 ‘경험이 전혀 없다’(45.7%), ‘경험이 약간 있다’(46.3%), ‘경험이 많다’(8.0%) 순이었음.
- 분석방법: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9.2 및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통계적 분석하였으며, 엑셀을 이용하여 도표를 작성하였음. 응답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무응답이거나 비논리적인 내용은 결측치로 처리하였음. 따라서 설문 문항별로 분석에 이용된 유효 관측치 수는 차이가 있음.
- 교차표 분석: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령별(30대 이하, 40대 이상), 가족 유형별(시부모 동거, 시부모 비 동거), 학력별(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업 이상), 한국 거주기간별(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한국어 실력별(보통 이하, 잘함),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없음, 있음)로 차이가 나는가를 교차표 분석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만 표로 제시하였음.

<표 1-1>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거주 지역	강원도	10	6.6
	충청권(충청도)	55	36.2
	호남권(전라도)	42	27.6
	영남권(경상도)	24	15.8
	제주도	21	13.8
연령 (평균: 37.1세)	20대 이하	26	17.3
	30대	72	48.0
	40대	30	20.0
	50대 이상	22	14.7
가족 유형	부부	10	7.0
	부부+자녀	64	45.1
	부부+자녀+시부모	61	43.0
	부부+자녀+시부모+기타	7	4.9
출신 국적	베트남	57	38.2
	필리핀	43	28.9
	중국(한족, 기타)	12	8.1
	캄보디아	11	7.4
	중국(조선족)	8	5.4
	일본	5	3.3
	기타	13	8.7
학력	중졸 이하	40	26.8
	고졸	71	47.7
	전문대 졸업	28	18.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0	6.7
한국 거주기간 (평균: 약 11년)	5년 미만	26	18.6
	5~10년 미만	39	27.8
	10~15년 미만	37	26.4
	15~20년 미만	18	12.9
	20년 이상	20	14.3
한국어 실력	매우 못한다	2	1.3
	못하는 편이다	20	13.3
	보통이다	69	46.0
	잘하는 편이다	52	34.7
	매우 잘한다	7	4.7
본국에서 농사 경험	경험이 전혀 없다	72	48.3
	경험이 약간 있다	57	38.3
	경험이 많다	20	13.4

주: 문항별 무응답 수가 달라서 총 설문조사 응답자 수가 차이가 남.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설문조사(152명) 결과

<표 1-2>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거주 지역	충청권(충청도)	9	6.0
	호남권(전라도)	110	72.9
	영남권(경상도)	21	13.9
	제주도	11	7.2
연령 (평균: 38.1세)	20대 이하	19	12.8
	30대	79	53.0
	40대	33	22.1
	50대 이상	18	12.1
가족 유형	부부	8	5.3
	부부+자녀	76	50.3
	부부+자녀+시부모	61	40.4
	부부+자녀+시부모+기타	4	4.0
출신 국적	베트남	72	47.7
	필리핀	23	15.2
	캄보디아	16	10.6
	일본	13	8.6
	중국(조선족)	10	6.6
	태국	7	4.6
	중국(한족, 기타)	6	4.0
	기타	4	2.7
학력	중졸 이하	46	30.5
	고졸	87	57.6
	전문대 졸업	11	7.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7	4.6
한국 거주기간 (평균: 11.6년)	5년 미만	8	5.3
	5~10년 미만	47	31.3
	10~15년 미만	57	38.0
	15~20년 미만	22	14.7
	20년 이상	16	10.7
한국어 실력	못하는 편이다	15	9.9
	보통이다	58	38.4
	잘하는 편이다	65	43.1
	매우 잘한다	13	8.6
본국에서 농사 경험	경험이 전혀 없다	69	45.7
	경험이 약간 있다	70	46.3
	경험이 많다	12	8.0

주: 문항별 무응답 수가 달라서 총 설문조사 응답자 수가 차이가 남.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151명)결과

○ 심층면접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8명), 농업교육 강사 및 사업 담당자등(13명) 총 2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총 8명: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이수 교육생 5명, 1:1 맞춤형 농업교육 이수 교육생 3명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강사 및 담당자 총 13명: 농업교육 강사 3명, 농협의 사업 담당자 5명, 1:1 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 5명
- 심층면접은 총 3차례 실시하였고, 실시 장소, 일시, 면접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제1차 심층면접은 전북 완주군 고산농협에서 2020년 10월 7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였음<표 1-3>.
- 제2차 심층면접은 전남 나주시 남평농협에서 2020년 10월 14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였음<표 1-4>.
- 제3차 심층면접은 전남 고흥군 팔영농협에서 2020년 11월 18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였음<표 1-5>.

<표 1-3> 제1차 심층면접(고산농협) 대상자

소속	이름	출신 국가	비고
고산농협	조○○	베트남	2019년 기초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고산농협	한○○	베트남	2020년 단계별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고산농협	코리○○○○○	필리핀	1:1맞춤형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고산농협	한○○	한국	1:1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
고산농협	국○○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고산농협	이○○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강사
농협 전북 지역본부	임○○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자료: 저자 작성.

<표 1-4> 제2차 심층면접(남평농협) 대상자

소속	이름	출신 국가	비고
남평농협	최○○	중국	2019년 기초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남평농협	팜티○○○	베트남	2020년 단계별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남평농협	팜티○	베트남	1:1맞춤형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남평농협	김○○	한국	1:1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
남평농협	이○○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나주시청	최○○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강사
농협 전남지역본부	김○○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자료: 저자 작성.

<표 1-5> 제3차 심층면접(팔영농협) 대상자

소속	이름	출신 국가	비고
팔영농협	김○○	중국	1:1 맞춤형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팔영농협	량○○	중국	2020년 단계별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팔영농협	강○○	한국	1:1 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
팔영농협	임○○	"	1:1 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
팔영농협	김○○	"	1:1 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
팔영농협	정○○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순천제일대학교	배○○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강사

자료: 저자 작성.

○ 초점집단면접(FGI)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농협의 지역적 분포, 교육생 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을 3개 권역(호남권, 영남권, 충청권)으로 나누어 총 3회의 초점집단면접(FGI)를 실시하였음.
- 각 권역별 초점집단면접에서는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농업교육 강사 및 후견인, 사업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0명 내외의 참여자로 구성

하였음.

- 제1차 초점집단면접은 전북 진안군 백운농협에서 2020년 10월 6일에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실시하였음<표 1-6>.
- 제2차 초점집단면접은 경남 함양군 함양농협에서 2020년 10월 13일에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실시하였음<표 1-7>.
- 제3차 초점집단면접은 충북 진천군 진천농협에서 2020년 11월 10일에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실시하였음<표 1-8>.

<표 1-6> 제1차 초점집단면접(백운농협) 참석자

소속	이름	출신 국가	비고
백운농협	마릴○○○○○○○○	필리핀	2019년 기초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백운농협	알카○○○○○○○○	필리핀	2020년 단계별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백운농협	박○○	중국	1:1맞춤형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백운농협	라호○○○○○	알제리	1:1맞춤형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백운농협	남○○	한국	1:1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
백운농협	이○○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백운농협	이○○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책임자
백운농협	서○○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강사
농협 전북지역본부	임○○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	〃	센터장
농협중앙회	문○○	〃	여성복지팀 팀장
농협중앙회	유○○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 담당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	연구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승연	〃	연구참여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승	〃	연구참여자

자료: 저자 작성.

<표 1-7> 제2차 초점집단면접(함양농협) 참석자

소속	이름	출신 국가	비고
함양농협	김○○	네팔	2019년 기초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함양농협	라마○○○○	네팔	2020년 단계별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함양농협	헤이○○○	캄보디아	1:1맞춤형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함양농협	솔몬○○	몽골	1:1맞춤형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함양농협	서○○	한국	1:1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
함양농협	최○○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함양농협	이○○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강사
농협 경남지역본부	김○○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농협중앙회	문○○	"	여성복지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	연구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승연	"	연구참여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승	"	연구참여자

자료: 저자 작성.

<표 1-8> 제3차 초점집단면접(진천농협) 참석자

소속	이름	출신 국가	비고
진천농협	조○	중국	2017년 기초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진천농협	원○○	베트남	2020년 단계별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진천농협	레○○	베트남	1:1맞춤형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진천농협	김○○	베트남	1:1맞춤형 농업교육 참여 결혼이민여성
진천농협	유○○	한국	1:1 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
진천농협	이○○	"	1:1 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
명심체험마을	이○○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강사
진천농협	김○○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농협 충북지역본부	김○○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농협중앙회	유○○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 담당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	연구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승연	〃	연구참여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승	〃	연구참여자

자료: 저자 작성.

○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농업인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협중앙회, 농협 지역본부, 지역농협,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연구협의회 개최: 학계 전문가,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 결혼이민여성, 농협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연구협의회를 3회 실시함.

2

농촌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1. 농촌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여성의 일반적 현황

○ 이 장에서는 농촌 다문화 가구 및 결혼이민여성의 현황을 분석할 목적으로 3종류의 2차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음.

- 2015~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다문화 가구 통계를 이용하여 전수 조사된 우리나라의 농촌 다문화 가구 및 결혼이민여성의 개괄적 현황을 파악하였음.
- 2011~2019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을 파악하였음.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¹⁾>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인구·경제·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였음²⁾.

1)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와 일반 귀화자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귀화자의 귀화 이유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변수가 제공되지 않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일반 귀화자 중 여성을 논의의 대상으로 함.

2)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과 출신국 분포는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음.

○ 이 절에서는 통계청이 전수 조사한 2015~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다문화 가구 및 결혼이민여성 통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촌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여성의 현황을 파악하였음. 또한, 2011~2019년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 다문화 가구 중 다문화 농가의 현황을 파악하였음.

1.1. 농촌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 농촌 다문화가족의 현황

-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353,803가구이며, 이중 도시 다문화 가구가 273,017가구(77.2%), 농촌 다문화 가구가 80,786가구(22.8%)임<표 2-1>.
- 2015~2019년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도시에 비해 농촌 다문화 가구 수의 증가추세가 상대적으로 더 완만하게 나타남<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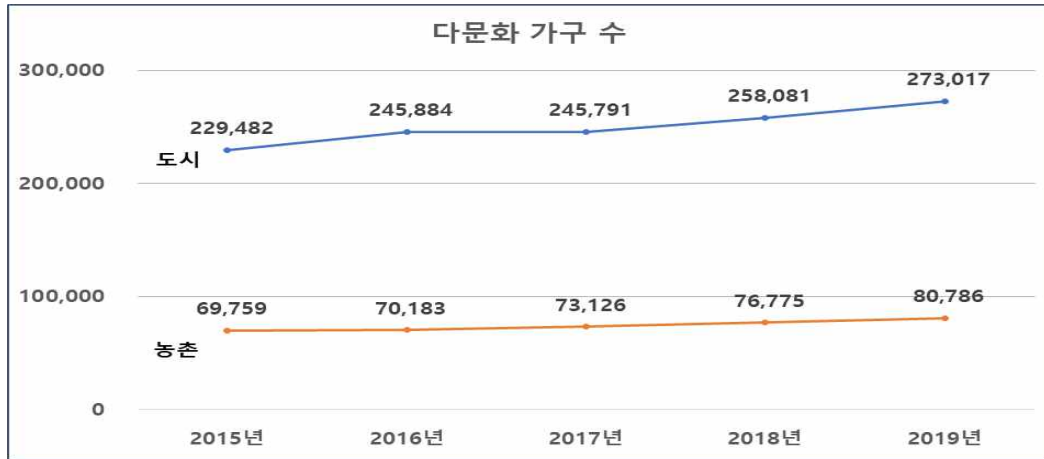
<표 2-1> 다문화 가구 수의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다문화 가구	도시	229,482 (76.7)	245,884 (77.8)	245,791 (77.1)	258,081 (77.1)	273,017 (77.2)
	농촌	69,759 (23.3)	70,183 (22.2)	73,126 (22.9)	76,775 (22.9)	80,786 (22.8)
	전체	299,241 (100.0)	316,067 (100.0)	318,917 (100.0)	334,856 (100.0)	353,803 (10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1> 연도별 다문화 가구 수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농촌 다문화 가구원 수의 현황

-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1,062,423명이며, 이중 도시 다문화 가구원 수가 791,579명(74.5%), 농촌 다문화 가구원 수가 270,844명(25.5%)으로 나타남<표 2-2>.
- 2015~2019년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도시에 비해 농촌 다문화 가구원 수의 증가추세가 상대적으로 더 완만하게 나타남<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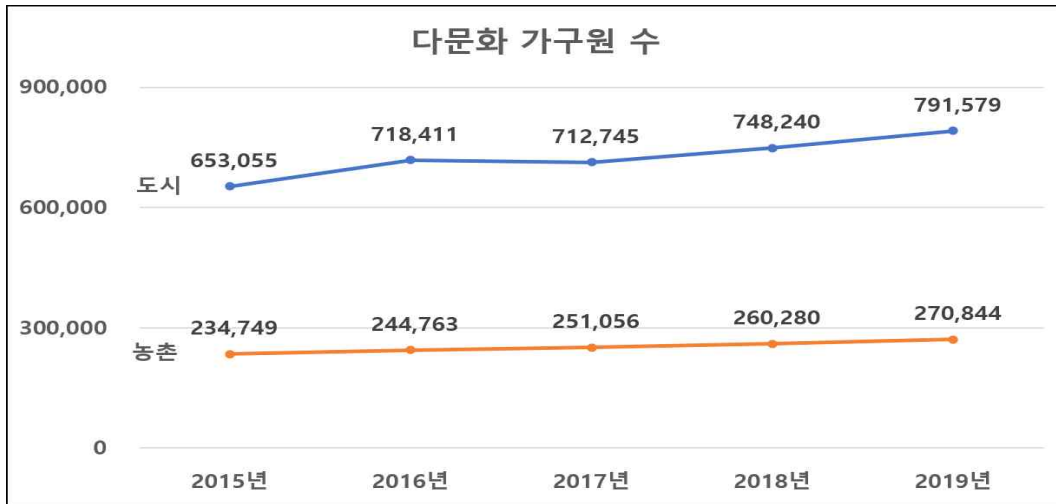
<표 2-2> 다문화 가구원 수의 현황

단위: 가구원 수,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다문화 가구원 수	도시	653,055 (73.6)	718,411 (74.6)	712,745 (74.0)	748,240 (74.2)	791,579 (74.5)
	농촌	234,749 (26.4)	244,763 (25.4)	251,056 (26.0)	260,280 (25.8)	270,844 (25.5)
	전체	887,804 (100.0)	963,174 (100.0)	963,801 (100.0)	1,008,520 (100.0)	1,062,423 (10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2> 연도별 다문화 가구원 수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다문화 농가의 현황

- 2011년부터 전체 농가 및 다문화 농가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전체 농가 대비 다문화 농가의 구성비는 1.2%~1.3% 정도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남<표 2-3>.
- 2011년부터 전체 농가 및 다문화 농가 인구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전체 농가 인구 대비 다문화 농가 인구의 구성비는 2.1~2.4%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남<표 2-3>.

<표 2-3> 다문화 농가의 현황

단위: 명, %

구 분	농가 가구 수			농가 인구 수		
	전체(a)	다문화(b)	구성비(b/a)	전체(c)	다문화(d)	구성비(d/c)
2011년	1,163,209	14,384	1.2	2,962,113	63,356	2.1
2012년	1,151,116	14,794	1.3	2,911,540	66,081	2.3
2013년	1,142,029	14,952	1.3	2,847,435	67,040	2.4
2014년	1,120,776	14,697	1.3	2,751,792	66,156	2.4
2016년	1,068,274	12,827	1.2	2,496,406	57,202	2.3
2017년	1,042,017	12,386	1.2	2,422,256	55,051	2.3
2018년	1,020,838	12,646	1.2	2,314,982	55,782	2.4
2019년	1,007,158	12,456	1.2	2,244,783	54,198	2.4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다문화 가구원 중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138,773명임. 이중 도시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103,894명(74.9%)이며,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34,879명(25.1%)으로 집계되었음<표 2-4>.
- 2017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도시와 농촌 모두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나, 농촌에 비해 도시 결혼이민여성 수의 증가가 두드러짐<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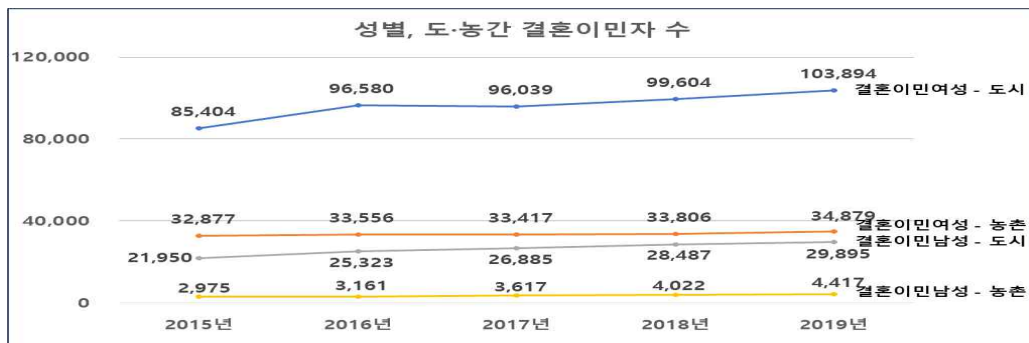
<표 2-4> 성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결혼이민 여성	도시	85,404 (72.2)	96,580 (74.2)	96,039 (74.2)	99,604 (74.7)	103,894 (74.9)
	농촌	32,877 (27.8)	33,556 (25.8)	33,417 (25.8)	33,806 (25.3)	34,879 (25.1)
	전체	118,281 (100.0)	130,136 (100.0)	129,456 (100.0)	133,410 (100.0)	138,773 (100.0)
결혼이민 남성	도시	21,950 (88.1)	25,323 (88.9)	26,885 (88.1)	28,487 (87.6)	29,895 (87.1)
	농촌	2,975 (11.9)	3,161 (11.1)	3,617 (11.9)	4,022 (12.4)	4,417 (12.9)
	전체	24,925 (100.0)	28,484 (100.0)	30,502 (100.0)	32,509 (100.0)	34,312 (10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3> 성별, 도·농간 결혼이민자 수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1.2.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연령 및 출신국의 분포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연령 분포

-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30~39세의 비율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29세(28.1%), 40~49세(17.9%)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표 2-5>.
- 도시 결혼이민여성 중 40세 미만의 비율이 59.6%이며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40세 미만의 비율이 65.9%인 것을 고려할 때, 저 연령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높게 나타남<표 2-5>.

<표 2-5> 결혼이민여성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0~19세	657 (0.6)	304 (0.9)	961 (0.7)
20~29세	22,927 (22.1)	9,813 (28.1)	32,740 (23.6)
30~39세	38,292 (36.9)	12,880 (36.9)	51,172 (36.9)
40~49세	21,471 (20.7)	6,237 (17.9)	27,708 (20.0)
50~59세	15,690 (15.1)	4,574 (13.1)	20,264 (14.6)
60세 이상	4,857 (4.7)	1,071 (3.1)	5,928 (4.3)
계	103,894 (100.0)	34,879 (100.0)	138,773 (100.0)

자료: 통계청(2019). 인구주택총조사.

○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가 분포

-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베트남 출신이 39.7%로 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국 출신(14.7%), 한국계 중국인(10.8%), 필리핀(9.2%), 일본(8.2%) 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표 2-6>.
-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동남아시아 출신(베트남, 필리핀, 그 외 동남아시아) 비율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농촌 결혼이민여성은 도시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중국 출신 또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동남아시아 출신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남.

<표 2-6>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가 분포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베트남	25,618 (24.7)	13,856 (39.7)	39,474 (28.4)
중국	22,607 (21.8)	5,133 (14.7)	27,740 (20.0)
중국(한국계)	21,882 (21.1)	3,773 (10.8)	25,655 (18.5)
일본	7,877 (7.6)	2,866 (8.2)	10,743 (7.7)
필리핀	7,227 (7.0)	3,226 (9.2)	10,453 (7.5)
그 외 동남아시아	5,906 (5.7)	3,291 (9.4)	9,197 (6.6)
기타	6,967 (6.7)	1,276 (3.7)	8,243 (5.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4,461 (4.3)	1,322 (3.8)	5,783 (4.2)
대만	1,349 (1.3)	136 (0.4)	1,485 (1.1)
계	103,894 (100.0)	34,879 (100.0)	138,773 (100.0)

자료: 통계청(2019). 인구주택총조사.

2.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인구·경제·사회적 특성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인구, 경제,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도시 결혼이민여성의 인구, 경제, 사회적 특성과 비교하였음.

2.1. 인구학적 특성

○ 한국 거주기간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 분포는 5년 미만이 14.4%, 5년~10년 미만이 32.7%, 10년~15년 미만이 32.9%이며, 15년 이상이 20.0% 순으로 높게 나타남<표 2-7>.
- 도시와 농촌 결혼이민여성 모두 한국에서 10~15년 미만으로 거주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년 이상의 장기 거주 비율은 농촌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도시 결혼이민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남.

<표 2-7> 결혼이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2년 미만	3,845 (2.3)	1,180 (2.0)	5,025 (2.2)
2~5년 미만	17,223 (10.1)	7,396 (12.4)	24,619 (10.7)
5~10년 미만	47,700 (28.1)	19,581 (32.7)	67,281 (29.3)
10~15년 미만	56,318 (33.2)	19,679 (32.9)	75,997 (33.1)
15년 이상	44,779 (26.4)	11,981 (20.0)	56,760 (24.7)
계	169,864 (100.0)	59,816 (100.0)	229,680 (100.0)

주: 가구원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혼인상태³⁾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대부분이 유배우자 상태(81.8%)였으며, 이혼 또는 별거의 비율이 11.6%, 사별한 비율이 5.7%, 미혼 비율이 0.8%로 나타남<표 2-8>.

3)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며,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번호가 제공되지는 않음. 따라서 여성 귀화자도 혼인상태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이들이 미혼일 경우 미혼으로 표시하였음.

- 이혼·별거의 비율이 도시 결혼이민여성(19.0%)이 농촌 결혼이민여성(11.6%) 높게 나타났으며, 유배우자의 비율은 농촌 결혼이민여성(81.8%)이 도시 결혼이민여성(71.2%)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8> 결혼이민여성의 혼인 상태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미혼	7,058 (4.2)	473 (0.8)	7,532 (3.3)
배우자 있음	120,861 (71.2)	48,940 (81.8)	169,801 (73.9)
사별	9,747 (5.7)	3,436 (5.7)	13,184 (5.7)
이혼·별거	32,197 (19.0)	6,966 (11.6)	39,163 (17.1)
계	169,864 (100.0)	59,816 (100.0)	229,680 (100.0)

주: 가구원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출신국에서의 교육연수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에서의 교육연수는 11년~15년의 비율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년~10년(40.7%), 5년 이하(6.8%)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표 2-9>.
- 도시 결혼이민여성 중 출신국에서의 교육연수가 6년~10년의 비율이 34.3%, 15년 이상의 비율이 10.6%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농촌보다는 도시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에서의 교육연수가 높았음.

<표 2-9>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 교육 연수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0~5년	10,071 (5.9)	4,064 (6.8)	14,134 (6.2)
6~10년	58,179 (34.3)	24,321 (40.7)	82,500 (35.9)
11~15년	83,618 (49.2)	27,569 (46.1)	111,186 (48.4)
15년 이상	17,997 (10.6)	3,863 (6.5)	21,860 (9.5)
계	169,864 (100.0)	59,816 (100.0)	229,680 (100.0)

주: 가구원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한국어 수준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수준은 원활한 한국 사회 정착에 매우 중요함. 이들의 한국어 수준을 파악할 목적으로 이들의 주관적인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총 4개의 영역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방식(1: 전혀 못한다, 2: 별로 못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잘한다, 5: 매우 잘한다) 응답 결과를 각 영역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하였음<표 2-10>.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영역별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3.74점), 듣기(3.83점), 읽기(3.44점), 쓰기(3.43점)로 말하기와 듣기의 평균 점수에 비해 읽기와 쓰기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도시 결혼이민여성보다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수준

단위: 점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말하기	3.97	3.74	3.94
듣기	4.06	3.83	4.00
읽기	3.90	3.44	3.83
쓰기	3.72	3.43	3.64
계	3.91	3.66	3.85

주: 결혼이민여성 본인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주관적 건강상태

- 결혼이민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의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였음.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72.7%이며, ‘나쁜 편이다’ 또는 ‘매우 나쁘다’로 응답한 비율은 6.9%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표 2-11>.

<표 2-11> 결혼이민여성의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매우 좋다	42,513 (24.7)	14,609 (24.5)	57,122 (24.7)
좋은 편이다	70,995 (41.3)	28,674 (48.2)	99,669 (43.1)
보통이다	36,303 (21.1)	12,152 (20.4)	48,455 (20.9)
나쁜 편이다	18,098 (10.5)	3,790 (6.4)	21,889 (9.5)
매우 나쁘다	4,029 (2.3)	310 (0.5)	4,339 (1.9)
계	171,939 (100.0)	59,535 (100.0)	231,474 (100.0)

주: 결혼이민여성 본인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가구 구성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율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본인·자녀·배우자 부모형제로 이루어진 가구(17.7%), 부부가구(14.6%)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표 2-12>.

<표 2-12> 결혼이민여성의 가구 형태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부부 + 자녀	63,840 (37.7)	23,677 (40.3)	87,517 (38.4)
부부	30,131 (17.8)	8,584 (14.6)	38,715 (17.0)
본인	28,422 (16.8)	5,217 (8.9)	33,639 (14.8)
본인 + 자녀 + 배우자 부모형제	11,597 (6.9)	10,402 (17.7)	21,999 (9.7)
본인 + 자녀	15,197 (9.0)	4,069 (6.9)	19,266 (8.5)
기타	11,614 (6.9)	2,845 (4.8)	14,459 (6.3)
본인 + 자녀 + 본인 부모형제	5,566 (3.3)	2,263 (3.9)	7,829 (3.4)
부부 + 배우자 부모형제	2,379 (1.4)	1,499 (2.6)	3,878 (1.7)
부부 + 본인 부모형제	492 (0.3)	127 (0.2)	619 (0.3)
계	169,238 (100.0)	58,683 (100.0)	227,921 (100.0)

주: 가구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2.2. 경제적 특성

○ 가구소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여부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가구소득⁴⁾ 분포는 ‘200~3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00~200만 원 미만’이 24.5%, ‘300~400만 원

⁴⁾ 지난 1년 동안의 평균 가구소득을 의미함.

미만'이 21.5%의 순서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표 2-13>.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비율은 7.0%로 나타났으며,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율은 6.4%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고소득 가구의 비율이 농촌 결혼이민여성 가구에 비해 도시 결혼이민여성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2-13> 결혼이민여성의 가구 소득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100만 원 미만	18,170 (10.7)	3,763 (6.4)	21,933 (9.6)
100~200만 원 미만	37,988 (22.4)	14,392 (24.5)	52,379 (23.0)
200~300만 원 미만	42,092 (24.9)	16,778 (28.6)	58,870 (25.8)
300~400만 원 미만	34,469 (20.4)	12,634 (21.5)	47,103 (20.7)
400~500만 원 미만	19,338 (11.4)	7,005 (11.9)	26,343 (11.6)
500만 원 이상	17,182 (10.2)	4,111 (7.0)	21,293 (9.3)
계	169,238 (100.0)	58,683 (100.0)	227,921 (100.0)

주: 가구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여부

- 결혼이민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비율은 도시 결혼이민여성이 6.0%이며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4.5%로서, 농촌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시 결혼이민여성의 수혜 비율이 높게 나타남<표 2-14>.

<표 2-14> 결혼이민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여부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수혜	10,210 (6.0)	2,629 (4.5)	12,839 (5.6)
미 수혜	159,028 (94.0)	56,054 (95.5)	215,082 (94.4)
계	169,238 (100.0)	58,683 (100.0)	227,921 (100.0)

주: 가구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근로, 경제활동, 개인소득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전반적인 경제상태 파악을 목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근로⁵⁾ 및 경제활동 상태와 소득에 대한 설문을 이용하였음.
- 근로상태의 비율이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68.7%, 도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60.3%로 나타나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일자리를 갖고 있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남 <표 2-15>.
- 근로상태인 농촌 결혼이민여성 대부분(87.9%)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상태로 나타남<표 1-16>.
- 근로상태인 도시 결혼이민여성 중 2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79.5%로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저임금 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근로상태인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단순노무종사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18.5%), 농림어업 숙련 종사(16.1%)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표 2-17>.
- 농림어업 숙련 종사의 비율이 도시 결혼이민여성(0.7%)보다 농촌 결혼이민여성 (16.1%)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남.

5)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였거나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이 있는 경우를 근로상태라 판단하였음.

<표 2-15>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근로	103,764 (60.3)	40,884 (68.7)	144,649 (62.5)
비 근로(직장 없음)	68,174 (39.7)	18,651 (31.3)	86,826 (37.5)
계	171,939 (100.0)	59,535 (100.0)	231,474 (100.0)

주: 결혼이민여성 본인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표 2-16> 결혼이민여성의 월평균 임금

단위: 명, %

구분	도시	농촌	전체
100만 원 미만	25,510 (24.6)	13,652 (33.4)	39,162 (27.1)
100~200만 원 미만	56,960 (54.9)	22,273 (54.5)	79,233 (54.8)
200~300만 원 미만	16,672 (16.1)	4,122 (10.1)	20,794 (14.4)
300~400만 원 미만	2,530 (2.4)	541 (1.3)	3,072 (2.1)
400~500만 원 미만	899 (0.9)	149 (0.4)	1,048 (0.7)
500만 원 이상	1,194 (1.2)	147 (0.4)	1,340 (0.9)
계	103,764 (100.0)	40,884 (100.0)	144,649 (100.0)

주: 결혼이민여성 본인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표 2-17> 결혼이민여성의 직업 분류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단순노무 종사자	30,922 (29.8)	13,269 (32.5)	44,191 (30.6)
서비스 종사자	21,654 (20.9)	7,555 (18.5)	29,209 (20.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115 (13.6)	5,958 (14.6)	20,073 (13.9)
판매 종사자	11,842 (11.4)	2,301 (5.6)	14,143 (9.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448 (10.1)	1,702 (4.2)	12,150 (8.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813 (6.6)	2,126 (5.2)	8,939 (6.2)
사무 종사자	6,183 (6.0)	1,240 (3.0)	7,422 (5.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76 (0.7)	6,582 (16.1)	7,358 (5.1)
관리자	1,012 (1.0)	152 (0.4)	1,164 (0.8)
군인	0 (0.00)	0 (0.00)	0 (0.00)
계	103,764 (100.0)	40,884 (100.0)	144,649 (100.0)

주: 결혼이민여성 본인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2.3. 사회적 특성

○ 생활만족도

- 현재의 주관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5단계의 리커트 방식의 설문을 이용하여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파악하였음.
-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현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8%,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1%로, 전반적으로 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절반 이상(58.9%)을 차지함<표 2-18>.
-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현 생활에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6%, ‘전

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0.9%로 현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9.5%로 나타남.

<표 2-18> 결혼이민여성의 생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매우 만족한다	40,497 (23.6)	14,181 (23.8)	54,677 (23.6)
약간 만족한다	55,374 (32.2)	20,906 (35.1)	76,280 (33.0)
보통	56,938 (33.1)	18,754 (31.5)	75,692 (32.7)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6,054 (9.3)	5,138 (8.6)	21,192 (9.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076 (1.8)	557 (0.9)	3,633 (1.6)
계	171,939 (100.0)	59,535 (100.0)	231,474 (100.0)

주: 결혼이민여성 본인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주관적 사회적 지위

-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지위 체감도를 묻는 설문을 이용하여 이들의 주관적인 한국 사회에서의 위치를 분석하였음. 설문에 대한 응답은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의 6단계 순위형으로 이루어졌음.
-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주관적 사회적 지위에 대해 '중상' 또는 '중하'의 위치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인식하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중간 정도라고 보여짐<표 2-19>.

<표 2-19> 결혼이민여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상상	3,142 (1.8)	1,128 (1.9)	4,270 (1.8)
상하	3,878 (2.3)	1,428 (2.4)	5,306 (2.3)
중상	42,307 (24.6)	15,567 (26.1)	57,874 (25.0)
중하	58,509 (34.0)	21,172 (35.6)	79,681 (34.4)
하상	38,597 (22.4)	13,908 (23.4)	52,505 (22.7)
하하	25,506 (14.8)	6,332 (10.6)	31,838 (13.8)
계	171,939 (100.0)	59,535 (100.0)	231,474 (100.0)

주: 결혼이민여성 본인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사회적 차별 경험

-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은 원활한 한국 사회 정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주관적인 차별 인식에 대한 설문을 이용하여 이들의 차별경험 유무를 파악하였음<표 2-20>.
-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차별 경험 응답비율이 29.6%, 도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차별 경험 응답비율이 31.1%로, 양자 모두 차별경험이 30% 내외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있다	53,537 (31.1)	17,652 (29.6)	71,189 (30.8)
없다	118,402 (68.9)	41,883 (70.4)	160,285 (69.2)
계	171,939 (100.0)	59,535 (100.0)	231,474 (100.0)

주: 결혼이민여성 본인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수혜 경험

-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응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음.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설문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및 지원 서비스는 ①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②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 ③ 통·번역 서비스 지원, ④ 임신·출산 지원, ⑤ 부모교육, ⑥ 자녀의 언어발달지원과 이중언어교육, ⑦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⑧ 사회활동 지원, ⑨ 가족관계, 비자 및 국적취득 등에 대한 각종 상담, ⑩ 일자리 교육 및 소개, ⑪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총 11가지임.
- 농촌 결혼이민여성(59,535명) 중에서 약 1/4 가량(24.4%)은 11개 종류의 교육 및 지원서비스 중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않았음<표 2-21>.
- 복수의 서비스 수혜를 고려했을 때,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수혜 경험이 많은 교육 및 지원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지원, 일자리 교육 및 소개,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각종 상담 순이었음.
-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1> 결혼이민여성의 교육 및 지원서비스 수혜

단위: 명, %

구 분		도시 (총 171,939명)	농촌 (총 59,535명)	전체 (총 231,474명)
미 수혜		64,645 (37.6)	14,505 (24.4)	79,150 (34.2)
수혜 (복수서비스 선택가능)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27,821 (16.2)	8,052 (13.5)	35,874 (15.5)
	아이돌보미 지원	18,388 (10.7)	9,310 (15.6)	27,697 (12.0)
	임신·출산 지원	14,262 (8.3)	5,977 (10.0)	20,239 (8.7)
	각종 상담 (가족관계, 비자 및 국적취득)	11,959 (7.0)	5,244 (8.8)	17,203 (7.4)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	11,861 (6.9)	4,282 (7.2)	16,143 (7.0)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7,579 (4.4)	4,417 (7.4)	11,996 (5.2)
	부모교육	3,516 (2.0)	2,708 (4.5)	6,224 (2.7)
	사회활동 지원	3,197 (1.9)	2,150 (3.6)	5,348 (2.3)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3,662 (2.1)	1,373 (2.3)	5,035 (2.2)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2,654 (1.5)	968 (1.6)	3,621 (1.6)
	통·번역 서비스 지원	2,395 (1.4)	549 (0.9)	2,943 (1.3)

주: 결혼이민여성 본인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다문화 시설 이용 경험

-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수혜와 관련된 다문화 시설 이용 경험 실태를 분석하였음.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다문화 시설은 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건강가정 지원센터, ③ 다누리 콜센터(1577-1366), ④ 주민 및 행정복지 센터, 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정부지원여성센터, ⑥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⑦ 사회복지관, ⑧ 기타 외국인 지원단체로, 총 8개 시설임.
- 농촌 결혼이민여성(59,535명)의 10.0%는 어떠한 다문화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2-22>.
- 복수의 다문화 시설 이용을 고려했을 때, 농촌 결혼이민여성은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

센터, 사회복지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음.

<표 2-22>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 분		도시 (총 171,939명)	농촌 (총 59,535명)	전체 (총 231,474명)
미이용		16,316 (9.5)	5,938 (10.0)	22,253 (9.6)
이용 (복수시설 선택가능)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68,443 (39.8)	21,538 (36.2)	89,981 (38.9)
	사회복지관	26,116 (15.2)	9,487 (15.9)	35,603 (15.4)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7,339 (15.9)	6,821 (11.5)	34,160 (14.8)
	기타 외국인 지원단체	16,108 (9.4)	5,237 (8.8)	21,344 (9.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7,503 (4.4)	5,108 (8.6)	12,610 (5.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	7,524 (4.4)	3,519 (5.9)	11,043 (4.8)
	건강가정 지원센터	1,797 (1.0)	1,328 (2.2)	3,126 (1.4)
	다누리 콜센터(1577-1366)	794 (0.5)	559 (0.9)	1,353 (0.6)

주: 결혼이민여성 본인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 사회참여 실태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참여는 농업교육 참여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였음. 사회참여종류는 ① 모국인 친구 교제, ② 지역주민활동, ③ 종교활동, ④ 민간단체활동, ⑤ 정치 및 노동조합 활동으로, 총 5가지임.
- 농촌 결혼이민여성(59,535명)의 27.3%는 어떠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2-23>.
- 복수의 사회활동 참여를 고려했을 때, 농촌 결혼이민여성은 주로 모국인 친구, 종교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3>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참여

단위: 명, %

구 분		도시 (총 171,939명)	농촌 (총 59,535명)	전체 (총 231,474명)
미 참여		58,836 (34.2)	16,274 (27.3)	75,110 (32.4)
참여 (복수선택 가능)	모국인 친구	67,449 (39.2)	19,648 (33.0)	87,097 (37.6)
	종교활동	27,996 (16.3)	11,546 (19.4)	39,542 (17.1)
	지역주민	7,671 (4.5)	7,932 (13.3)	15,603 (6.7)
	민간단체	8,276 (4.8)	3,625 (6.1)	11,901 (5.1)
	정치활동 및 노동조합	1,711 (1.0)	511 (0.9)	2,222 (1.0)

주: 결혼이민여성 본인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

3. 소결

○ 전반적으로 농촌 결혼이민여성은 도시 결혼이민여성보다 인구·경제·사회적 특성에 있어서 비교되며 상당히 이질적이라 할 수 있음.

○ 인구학적으로, 도시 결혼이민여성보다 농촌 결혼이민여성은 저 연령이거나, 본국에서 받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도시 결혼이민여성보다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동남아시아 출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 출신 또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음. 농촌 결혼이민여성보다 도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서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 농촌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이질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으로, 도시 결혼이민여성보다 농촌 결혼이민여성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

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도시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근로상태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근로상태를 전제할 때 저임금 근로와 농림어업 숙련업 종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가 많음.

○ 사회적으로, 도시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양자 모두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내외나 됨. 또한, 농촌 결혼이민여성 본인의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중하’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넘음.

－ 도시와 농촌 결혼이민여성 모두 본인이 한국사회에서 소외·배제되었다고 느낄 확률이 크다고 여겨지며, 이들을 위한 융화·포용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

○ 교육 및 사회서비스 수혜의 경우, 전반적으로 농촌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도시 결혼이민여성의 수혜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수혜 비율이 높은 교육 및 지원서비스는 일자리 교육 및 소개, 아이돌보미 지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각종 상담 순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과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촌 및 도시 결혼이민여성 모두 주민복지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용경험이 많으므로, 상기 시설의 이용 동기와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농촌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뿐만 아니라 교육효과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상기 시설을 이용하여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를 확대하거나 농업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3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1. 사업의 개요⁶⁾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서 2020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본 사업의 기본 목적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제공하여 후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⁷⁾ 이외에 추가적인 목적으로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영능력을 향상하여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농협중앙회 2013~2019),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화합을 유도하고, 교육생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임(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2020).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2020)에 따르면 본 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54조(농촌주민의 복지 증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 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 6조(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지원)임.

6)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에서 작성한 '2020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이전 년도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2010~2020), 농협중앙회(2013~2019)

○ 사업은 크게 농업교육, 교육성과 발표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운영 담당자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교육은 단계별 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구성됨.

－ 교육성과 발표 및 네트워크 강화에서는 결혼이민여성 리더 경진 대회, 평가 워크숍,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을 진행함.

－ 사업 운영 담당자 교육에서는 농협 지역본부와 지역농협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증진시키며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임.

○ 농업교육은 단계별 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구성됨.

－ 단계별 농업교육은 결혼이민여성에게 기초 영농 교육, 농기계 사용법 교육, 현장 체험, 농촌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필수교육은 연간 총 9회 실시됨. 선택교육은 연간 총 6회 실시되며 교육 단계에 따라 구분 운영하며, 지역농협의 사정에 따라 내용 변경이 가능함.

－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2009년부터 시작하였음. 주요 내용은 결혼이민여성 과 전문 여성농업인을 1:1로 맞추어서 멘토링을 하는 것임.

○ 교육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중 영농 정착 의지가 있고,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임. 여기서 결혼이민여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임.

－ 기초과정 농업교육의 대상은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여성이고, 심화과정 농업교육은 기초과정 농업교육을 수료한 결혼이민여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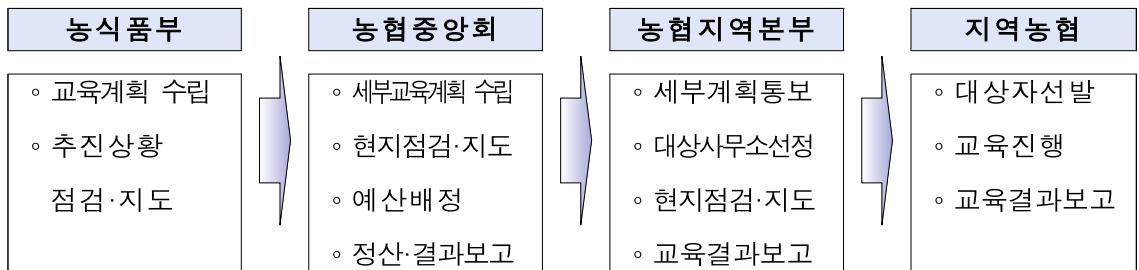
－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후견인(멘토)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임. 2018년 계획부터는 기존에 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여성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후견인 1명에 교육생(멘티) 2명까지 조합이 될 수 있게 변경되었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 3-1>과 같음.

- 매해 교육 기본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수립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함.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교육 예산을 배정함. 농협 지역본부와 지역농협에서는 수립된 세부계획을 전달받음.
-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교육을 실시할 지역농협을 선정하고, 지역농협에서는 교육 대상을 선발함.
- 선발된 대상자에게 지역농협에서 농업교육을 실시함.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함.
- 교육이 끝난 후, 교육 결과는 지역농협 → 농협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농식품부로 보고함. 농협중앙회는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교육 결과와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농식품부로 보고함.

○ 본 사업의 사업비는 국고보조 100%임.

<그림 3-1> 결혼이민여성의 농업교육 추진체계(2020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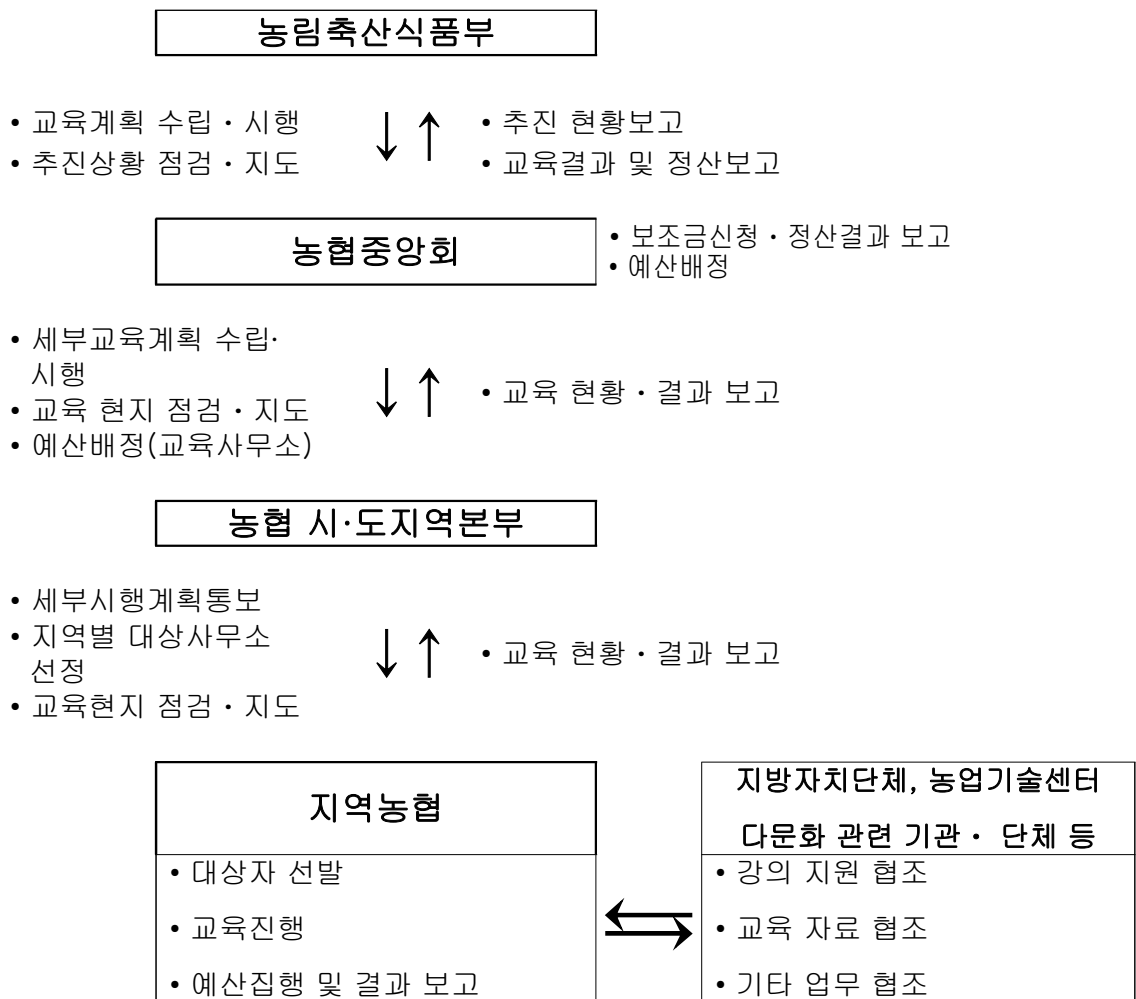
1.1.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 2019년까지는 기초 농업교육이었으나, 2020년부터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농업교육으로 세부 교육명이 바뀌었음⁸⁾. 이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시

행된 농업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이수자도 심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임.

○ 단계별 농업교육 운영 체계는 다음의 <그림 3-2>와 같음.

<그림 3-2>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의 운영체계(2020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2020).

8) 본 보고서에서 단계별 농업교육이라고 하면 2019년까지는 기초 농업교육을 지칭함. 본 장의 사업 실적과 성과 평가 부분에서는 2019년까지의 기초농업교육을 대상으로 함.

1.1.1. 기초 과정

- 기초 과정의 교육 목표는 결혼이민여성이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문화를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교육 대상은 정착 초기 단계의 결혼이민여성이고, 인원은 지역 농협별로 15~30명 정도임.
- 교육 내용은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구성됨<표 3-1>.
 - 교육은 15회로 회당 3~4시간으로 구성되어, 총 교육 시간은 45~60시간임.
 - 필수교육의 내용은 농업정책교육, 양성평등 교육, SNS 활용 교육, 농산물 생산·유통 교육, 찾아가는 마을교육, 연말 간담회임.
 - 선택교육은 전통식품 관련 교육, 농업 선진지 견학, 역사 학습임.

<표 3-1> 결혼이민여성 단계별(기초과정) 농업교육의 내용(2020년)

구 분	제 목	내 용	시 간
필수	농업정책	- 영농 지원 정책 - 다문화·출입국 관련 정책	3
	양성평등	- 성폭력·가정폭력 등 성평등 의식 확산 - 부부·자녀교육 등 가족 관계	3
	SNS 활용	-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 마케팅 방법 - 농업·농촌 알리기 SNS 콘텐츠 제작 - SNS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친목 도모 활동과 동호회 운영	6
	농산물 생산·유통	- 6개월 이내 수확이 가능한 작물을 선택(1~3종)하여 1,000평 이내 임대 토지에서 멘토가 재배 전과정 교육 -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통매장 이용, 포장 및 유통 실습	9
	찾아가는 마을	- 교육생이 거주하는 마을(면단위)을 방문하여 우수 농가 체험 - 환경미화, 재배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제공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 교육 - 지역 주민과 이해도 제고 및 교육 내용 홍보	3
	연말 간담회	- 교육생과 가족, 지역 주민 참여 - 주요 교육 결과 공유 - 지역 주민과 소통 확대 - 향후 지역 사회와의 교육 연계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	3
선택	전통식품	- 전통 발효식품(고추장, 된장, 김치)의 역사, 종류, 효능 등 이론 교육 - 전통 발효식품 만들기 등 실습을 통해 한국 음식문화 이해 - 약선 음식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 - 나눔 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 사회와 소통의 장 형성	12
	선진지 견학	- 우수 6차산업마을 견학, 우수마을 공동체 상생 활동 벤치마킹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농업·농촌 정착 동기부여 - 결혼이민여성과 지역여성농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토론회를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및 교육생간 화합 도모	미정
	역사학습	- 인근 역사유적지를 방문해서 농업·농촌 및 한국 역사 이해	미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2020).

1.1.2. 심화 과정

○ 심화 과정의 교육 목표는 결혼이민여성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는 것임.

○ 교육 대상은 기존에 기초교육을 수료한 결혼이민여성이고, 인원은 지역 농협별 15~30명 정도임.

○ 교육 내용은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구성됨<표 3-2>.

- 기초 과정 교육과 마찬가지로 심화 과정 교육은 15회로 회당 3~4시간으로 구성되어, 총 교육 시간은 45~60시간임.

- 필수교육은 기초 과정 교육과 동일하게 농업정책교육, 양성평등 교육, SNS 활용 교육, 농산물 생산·유통 교육, 찾아가는 마을교육, 연말 간담회로 구성됨.
- 선택교육은 농업 선진지 견학, 지역 멘토 강연, 농기계 교육, 6차산업 심화과정으로 구성됨.

<표 3-2> 결혼이민여성 단계별(심화과정) 농업교육의 내용(2020년)

구분	제목	내용	시간
필수	농업정책	- 영농 지원 정책 - 다문화·출입국 관련 정책	3
	양성평등	- 성폭력·가정폭력 등 성평등 의식 확산 - 부부·자녀교육 등 가족 관계	3
	SNS 활용	-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 마케팅 방법 - 농업·농촌 알리기 SNS 콘텐츠 제작 - SNS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친목 도모 활동, 동호회 운영	6
	농산물 생산·유통	- 6개월 이내 수확이 가능한 작물을 선택(1~3종)하여 1,000평 이내 임대 토지에서 재배 전과정 교육 -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통매장을 이용해서 포장 및 유통 실습	9
	찾아가는 마을	- 교육생이 거주하는 마을(면단위)을 방문하여 우수 농가 체험 - 환경미화, 재배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제공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 교육 - 지역 주민과 이해도 제고 및 교육 내용 홍보	3
	연말 간담회	- 교육생과 가족, 지역 주민 참여 - 주요 교육 결과 공유 - 지역 주민과 소통 확대 - 향후 지역 사회와 교육을 연계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 논의	3
선택	농업 선진지 견학	- 지역 내 우수 6차산업농가, 체험장, RPC, 가공 공장 등 견학 - 선진 농법 및 농업경영법 습득	미정
	지역멘토 강연	- 우수 정착 결혼이민여성 등 전문여성농업인 강연 - 성공사례 공유 및 농업경영법·갈등 관리 방법 공유	미정
	농기계	- 농기계별 사용법, 작업 안전수칙, 농기계 관리법 등 교육 -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교육 시행	미정
	6차산업	- 농산물가공센터, 체험마을 등 방문해서 6차산업과정 체험 - 교육생이 재배한 농산물의 가공품 모델화 등 실습	미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2020)

1.2. 1:1 맞춤형 농업교육

-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목적은 결혼이민여성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는 것임.
-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결혼이민여성이 교육생(멘티)이 되고, 지역의 전문여성농업인이 후견인(멘토)으로 구성되어 1:1 혹은 1:2로 진행됨.
 - 교육 대상은 영농의지가 있고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을 습득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여성임.
 - 후견인의 자격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결혼이민여성을 우수 농업인력으로 양성할 의지가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임. 기존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하였으나, 2020년부터 기존에 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여성, 귀농·귀촌인, 청년 여성농업인, 6차 산업화 우수 농업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음.
- 교육 과정은 3단계(멘토 역량 강화, 멘토와 멘티간 오리엔테이션, 1:1 영농 교육)로 구성됨<표 3-3>.
 - 멘토 역량 강화 단계는 지역 농협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후견인(멘토)에게 사전 집합교육을 시행하는 것임.
 - 멘토와 멘티간 오리엔테이션은 지역 농협본부에서 주관하여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임.
 - 1:1 영농교육은 지역농협에서 주관하며, 멘토가 멘티에게 본격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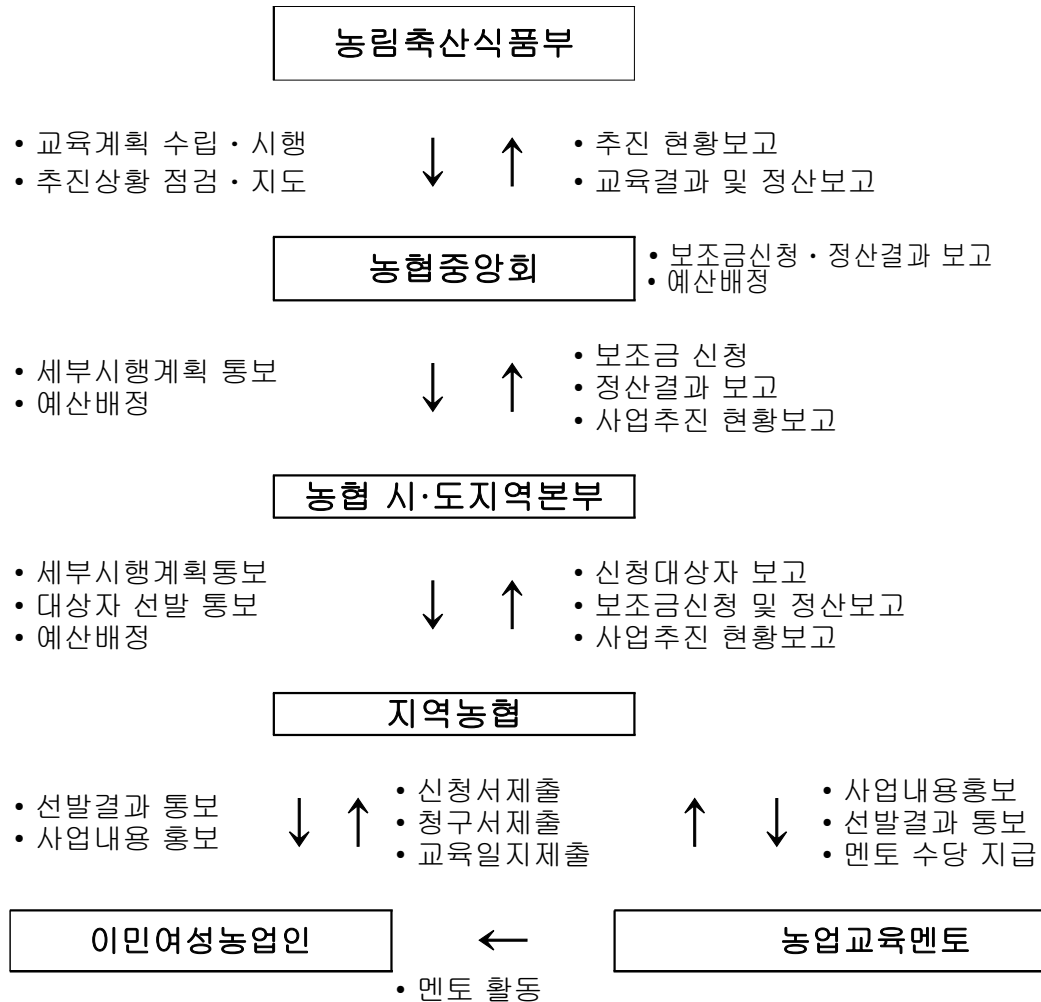
<표 3-3>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내용(2020년)

구 분	교육 내용
멘토 역량 강화	- 여성 농업인과 결혼이민여성 지원 정책 등 농업 정책 - 다문화 이해 교육(국별 문화, 주요 언어 등) - 성희롱,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 지원 정책 - 영농 교수법·멘토 교육 일지 작성법
오리엔테이션	- 멘토-멘티 첫 만남과 자기 소개 등을 통한 유대감 형성 - 작물 선정 등 영농 계획 수립과 발표 및 정보 공유 - 성폭력, 가정 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 지원 방안
영농 교육	- 작물 선정 - 재배 전과정, 작물별 특성, 농약 사용법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2020).

○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운영체계는 <그림 3-3>과 같음.

<그림 3-3>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운영체계(2020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2020).

1.3. 성과 발표 및 네트워크 강화

- 우수 결혼이민여성 리더 경진 대회, 교육평가 워크숍,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간담회 등을 실시함.

1.3.1. 우수 결혼이민여성 리더 경진 대회

- 이 사업의 목적은 교육 실적이 우수한 결혼이민여성을 발굴하여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 우수 결혼이민여성 리더 경진 대회는 10월 15일(세계 여성농업인의 날과 연계)에 개최함.
- 리더를 선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리더를 선발하는 부문은 영농, 농촌 적응, SNS 활용 3가지임.
 - 추천 인원은 총 50명으로 부문별로 농협 지역본부 당 2명 이내로 추천함.
 - 농업기술, 조직력, 지역사회와의 친화, 봉사 활동 등의 지역 사회 기여 등을 기준으로 종합하여 추천함.
 - 부문별로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발함.

1.3.2. 교육 평가 워크숍

- 워크숍의 목적은 당해 연도 농업교육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결혼이민여성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임. 추가로 당해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차 년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활용함.
- 워크숍 시기는 11월 중임.
- 워크숍에서는 당해 연도 우수 교육생을 시상하고 지역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농업교육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청취하며, 차 년도 교육 계획을 안내함.

1.3.3.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 본 공모전의 목적은 결혼이민여성 및 여성농업인의 삶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농촌에서의 생활을 홍보하는 것임. 다른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도 함.
- 공모 부분은 청년, 귀농·귀촌, 다문화의 3개 부문이며, 대상 1명, 우수상 6명, 장려상 12명을 선정함.

1.3.4. 간담회

- 연말에 지역별로 교육생,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함.

2. 운영 성과

2.1. 사업 실적(2009~2019년)

- 2009~2019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에서 농업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여성은 총 16,104명으로, 이는 계획했던 인원인 14,210명에 비해 13.3% 정도를 초과한 수준임. 연도별로는 2009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14년(1,810명)까지 꾸준히 교육받은 인원이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1,500~1,7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3-4>.
-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초농업교육을 받은 전체 인원은 8,408명으로 이는 계획보다 26.1% 많은 수준임. 1:1 맞춤형 교육에서는 총 7,696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계획된 인원(7,540명) 2.1% 초과 달성하였음.

<표 3-4>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세부사업별 교육계획 인원 및 실적

단위: 명, %

구 분	기초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계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09	미운영			700	728	104.0	700	728	104.0
10	500	563	112.6	500	536	107.2	1,000	1,099	109.9
11	500	581	116.2	600	655	109.2	1,100	1,236	112.4
12	500	712	142.4	600	650	108.3	1,100	1,362	123.8
13	600	884	147.3	700	722	103.1	1,300	1,606	123.5
14	820	1,059	129.1	740	751	101.5	1,560	1,810	116.0
15	750	939	125.2	700	757	108.1	1,450	1,696	117.0
16	800	1,015	126.9	700	749	107.0	1,500	1,764	117.6
17	800	885	110.6	700	780	111.4	1,500	1,665	111.0
18	700	822	117.4	800	747	93.4	1,500	1,569	104.6
19	700	948	135.4	800	621	77.6	1,500	1,569	104.6
계	6,670	8,408	126.1	7,540	7,696	102.1	14,210	16,104	113.3

주: 1) 비율 = 실적/계획×100

2) 교육 계획 인원은 각 년도 삶의 질 계획 및 성과 보고서를 따르고, 교육 결과 인원은 각 년도 농협 결과보고서를 따름.

3) 2013년 단계별 교육 계획 인원은 삶의 질 계획 및 성과 보고서(600명)와 농협 결과보고서(700명)이 다름. 여기에서는 삶의 질 계획 및 성과 보고서를 따름.

4) 2018년부터는 계획 인원도 농협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였음. 삶의 질 계획과 성과 보고서에는 세부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2010~2020), 농협중앙회(2010~2019).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의 예산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7억 3,600만 원이 투입되었음⁹⁾. 연도별 사업 예산을 보면, 2009년 4억 2,6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15억 2,600만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19년 13억 6,600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결산 내역¹⁰⁾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총 12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음 <표 3-5>.

－ 2014년까지 예산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 것은 매해 약 10% 이상의 예산 불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예산 불용액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세부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기초농업교육 사업의 예산액이 1:1 맞춤형 교육

9) 2009년의 결산액이 없는 관계로 <표 2-5>에 있는 1:1 맞춤형 교육과 계의 예산액 합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합계임.

10) 2009년 결산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2009년의 결산액은 빠져있음.

사업보다 더 큼. 이는 기초농업교육사업에는 전문가를 초빙하고, 각종 교육 교재 등을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임. 이에 비해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사업비는 강사 섭외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어 전체 예산이 적음.

<표 3-5>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세부사업별 교육 예산 및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기초			1:1 맞춤형			계		
년도	예산	결산	비율	예산	결산	비율	예산	결산	비율
2009	미운영			426			426		
2010	750	728	97.1	426	424	99.5	1,176	1,152	98.0
2011	750	651	86.9	426	367	86.2	1,176	1,019	86.6
2012	750	715	95.3	426	371	87.1	1,176	1,086	92.3
2013	900	796	88.4	426	357	83.8	1,326	1,153	86.9
2014	960	782	81.5	566	450	79.5	1,526	1,232	80.7
2015	926	792	85.5	540	537	99.4	1,466	1,328	90.6
2016	876	754	86.1	490	488	99.5	1,366	1,242	90.9
2017	836	822	98.3	530	527	99.4	1,366	1,349	98.8
2018	760	725	95.4	606	563	93.0	1,366	1,288	94.3
2019	749	753	100.5	617	605	98.2	1,366	1,359	99.5
계	8,257	7,518	91.1	5,053	4,689	92.8	13,310	12,208	91.7

주: 1) 비율 = 결산/예산X100

2) 예산액은 각 년도 삶의 질 계획 및 성과를 따르고, 결산액 각 년도 농협 결과보고서를 따름.

3) 2015년부터 예산도 농협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였음. 삶의 질 계획 및 성과 보고서에는 단계별과 1:1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4) 2009년 결산자료는 없음. 따라서 예산액과 결산액의 총계는 2010~2019년의 합계이고, 비율도 2010~2019년 사이의 결산액 합계와 예산액 합계의 비율임.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물부(2010~2020), 농협중앙회(2010~2019).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1인당 교육비용은 2010년 104만 8천 원에서 2014년 68만 800원으로 감소하다가 이후에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는 86만 6천 원으로 증가하였음<표 3-6>.

－ 이는 전체 결산액 기준 2010년 11억 7,600만 원이었다가 2019년 13억 5,900만 원으로 약 18.0% 증가한데 반해서 교육받은 인원은 2010년 1,099명에서 2019년 1,569까지 약 42.8%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1인당 평균 교육비용은 기초농업교육이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비해 더 큼¹¹⁾. 이는

11) 2018년은 1:1 맞춤형 교육의 인당 비용이 더 큰데 이는 교육 받은 인원수가 계획보다 적기 때문임.

강의실 비용, 강사 섭외비 등이 소요되기 때문임.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의 시간당 비용은 일인당 비용과 같은 양상을 보임<표 3-7>. 이는 시간당 비용은 1인당 비용을 1인당 총 교육 시간인 60시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임.

<표 3-6>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1인당 비용

단위: 천원/명, %

년도	기초			1:1 맞춤형			계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2009		미운영		608.6					
2010	1,500.0	1,293.1	86.2	852.0	791.0	92.8	1,176.0	1,048.2	89.1
2011	1,500.0	1,121.2	74.7	710.0	560.9	79.0	1,069.1	824.3	77.1
2012	1,500.0	1,004.2	66.9	710.0	570.8	80.4	1,069.1	797.4	74.6
2013	1,500.0	900.2	60.0	608.6	494.5	81.2	1,020.0	717.8	70.4
2014	1,170.7	738.6	63.1	764.9	599.2	78.3	978.2	680.8	69.6
2015	1,234.7	843.1	68.3	771.4	709.0	91.9	1,011.0	783.3	77.5
2016	1,095.0	742.9	67.8	700.0	651.0	93.0	910.7	703.9	77.3
2017	1,045.0	928.9	88.9	757.1	675.6	89.2	910.7	810.3	89.0
2018	1,085.7	881.8	81.2	757.5	754.1	99.5	910.7	821.0	90.2
2019	1,070.6	794.7	74.2	770.8	974.9	126.5	910.7	866.0	95.1
계	1,238.0	894.2	72.2	726.6	609.3	83.9	966.6	758.1	78.4

주: 1) 비율 = 실적/계획×100

2) 교육 계획과 인원, 예산 및 결산액은 각각 <표 3-4>, <표 3-5>를 참조하였음.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물부(2010~2020), 농협중앙회(2010~2019).

<표 3-7>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시간당 비용

단위: 천원/시간, %

년도	기초			1:1 맞춤형			계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2009	미운영			10.1					
2010	25.0	21.6	86.2	14.2	13.2	92.8	19.6	17.5	89.1
2011	25.0	18.7	74.7	11.8	9.3	79.0	17.8	13.7	77.1
2012	25.0	16.7	66.9	11.8	9.5	80.4	17.8	13.3	74.6
2013	25.0	15.0	60.0	10.1	8.2	81.2	17.0	12.0	70.4
2014	19.5	12.3	63.1	12.7	10.0	78.3	16.3	11.3	69.6
2015	20.6	14.1	68.3	12.9	11.8	91.9	16.9	13.1	77.5
2016	18.3	12.4	67.8	11.7	10.9	93.0	15.2	11.7	77.3
2017	17.4	15.5	88.9	12.6	11.3	89.2	15.2	13.5	89.0
2018	18.1	14.7	81.2	12.6	12.6	99.5	15.2	13.7	90.2
2019	17.8	13.2	74.2	12.8	16.2	126.5	15.2	14.4	95.1
계	20.6	14.9	72.2	12.1	10.2	83.9	16.1	12.6	78.4

주: 1) 비율 = 실적/계획X100

2) 시간당 비용은 <표 3-6>의 일인당 비용을 인당 교육 시간인 60시간으로 나눈 것임.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2010~2020), 농협중앙회(2010~2019)

○ 2013~2019년 기간 동안에 광역 지자체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받은 인원은 전남이 1,7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남, 경북, 전북, 경기, 강원, 충북, 울산, 제주 순임. 이 중 전남, 충남, 전북, 경기는 교육 인원이 1,000명 이상임<표 3-8>.

-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시와 대구시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20명 이하임.
- 기초농업교육을 받은 인원수는 전남(925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북, 경남, 충남, 전북, 경기, 충북, 울산, 대구, 제주 순임. 1:1 맞춤형 교육은 전남(775명), 충남, 경북, 전북, 경남, 경기, 충북, 강원, 제주 순임.
- 전남과 경남은 기초농업교육을 받은 인원이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은 인원보다 150명 이상 많은데 비해서, 경기도에서는 1:1 맞춤형 교육을 받은 인원이 기초농업교육을 받은 인원보다 많음.
- 대구와 울산은 기초농업교육을 받은 인원이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은 인원보다 200명 이상 많음.

<표 3-8> 광역 단위 지역·연도별 교육 인원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계	소계	1,606	1,810	1,696	1,764	1,664	1,569	1,569	11,678
	기초	884	1,059	939	1,015	884	822	948	6,551
	1:1	722	751	757	749	780	747	621	5,127
경기	소계	66	114	122	164	176	206	217	1,065
	기초		40	40	80	90	121	145	516
	1:1	66	74	82	84	86	85	72	549
강원	소계	125	202	138	147	150	105	113	980
	기초	69	130	67	79	80	56	66	547
	1:1	56	72	71	68	70	49	47	433
충북	소계	169	127	123	139	127	123	164	972
	기초	98	62	57	82	59	57	93	508
	1:1	71	65	66	57	68	66	71	464
충남	소계	216	207	237	263	280	187	176	1,566
	기초	110	103	130	142	160	77	90	812
	1:1	106	104	107	121	120	110	86	754
전북	소계	135	198	186	222	218	201	189	1,349
	기초	81	108	92	126	111	102	117	737
	1:1	54	90	94	96	107	99	72	612
전남	소계	262	271	273	187	205	222	280	1,700
	기초	145	173	171	97	100	101	138	925
	1:1	117	98	102	90	105	121	142	775
경북	소계	281	239	193	244	247	225	113	1,542
	기초	170	127	84	141	132	115	54	823
	1:1	111	112	109	103	115	110	59	719
경남	소계	234	230	242	239	150	147	143	1,385
	기초	129	137	160	156	72	69	95	818
	1:1	105	93	82	83	78	78	48	567
제주	소계	75	60	57	55	14	10	10	281
	기초	57	37	35	30				159
	1:1	18	23	22	25	14	10	10	122
울산	소계	33	125	76	63	49	95	107	548
	기초	25	116	65	51	40	84	98	479
	1:1	8	9	11	12	9	11	9	69
기타 특·광역시	소계	10	37	49	41	48	48	57	290
	기초	0	26	38	31	40	40	52	227
	1:1	10	11	11	10	8	8	5	63

주: 1) 기타 특광역시에는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가 포함됨.

2) 기타 특·광역시에서 대구만 기초 농업교육과 1:1 맞춤형 교육을 모두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1:1 맞춤형 교육만 실시하였음.

자료: 농협중앙회(2013~2019)

○ 도 단위로 보면,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가 그렇지 않은 경기도, 강원도 등에 비해 교육생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주변 지역에 상대적으로 공장 등 농업 이외의 소득원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 보다는 농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 결혼이민여성이 농업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과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농협 지역본부와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의 열정과 관심이 농업 교육사업의 진행과 교육생의 모집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주관한 지역농협은 총 2,258개소이고, 기초농업교육은 163개소, 1:1 맞춤형 교육은 2,095개소에서 실시하였음<표 3-9>. 기초농업교육은 강의실을 준비하는 등 장소를 확보해야 하나,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멘토와 멘티 간의 만남을 주관하면 되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준비가 덜 필요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됨.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실시한 농협은 2013에서 2019년 사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초농업교육은 2013년에는 38개소에서 실시하였는데, 2019년에는 12개소에서 실시하였음. 1:1 맞춤형 농업교육도 2013년에는 331개소에서 실시하였는데 2019년에는 220개소에서 실시하였음.

○ 각 농협 당 평균 교육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남. 2013년에는 각 농협 당 평균 4.4명이 교육을 받았다면, 2019년에는 평균 6.8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교육별로 보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남. 기초농업교육은 2013년에 농협 당 평균 23.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79.0명이 교육을 받아 약 240%가 증가하였음.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2013년의 평균 2.2명에서 2019년에는 2.8명으로 증가하여 약 29.4%가 증가하였음.

○ 기초농업교육은 15~20명 정도가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공간 등이 필요해서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의 준비 등에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시하는 농협이 적음.

-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따로 강의실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교육생과 후견인이 따로 만나서 진행하면 되므로 면단위 지역농협에서도 실시하고 있음.

- 단계별 농업교육을 실시할 때는 집합 농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농협이 적으므로, 교육 실시, 교육생 모집, 교육생의 교통편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도 단위로 보면, 상대적으로 농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가 그렇지 않은 경기도, 강원도 등에 비해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농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 광역 단위 지역·연도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실시 농협

단위: 개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계	소계	369	330	333	346	347	301	232	2258
	기초	38	29	26	24	18	16	12	163
	1:1	331	301	307	322	329	285	220	2095
경기	소계	26	13	25	46	42	44	36	232
	기초		1	1	1		1	1	5
	1:1	26	12	24	45	42	43	35	227
강원	소계	19	22	23	26	31	23	20	164
	기초	3	3	1	2	2	1		12
	1:1	16	19	22	24	29	22	20	152
충북	소계	38	37	35	36	38	32	29	245
	기초	5	2	3	2	1	1		14
	1:1	33	35	32	34	37	31	29	231
충남	소계	50	48	47	50	51	43	36	325
	기초	5	4	4	5	5	2	2	27
	1:1	45	44	43	45	46	41	34	298
전북	소계	23	20	22	21	22	20	12	140
	기초	3	3	3	4	3	3	2	21
	1:1	20	17	19	17	19	17	10	119
전남	소계	86	73	65	50	54	45	41	414
	기초	6	5	5	4	3	3	5	31
	1:1	80	68	60	46	51	42	36	383
경북	소계	52	48	48	41	44	31	20	284
	기초	7	4	3	4	3	3		24
	1:1	45	44	45	37	41	28	20	260
경남	소계	45	36	31	43	42	39	20	256
	기초	6	4	2	1	1	1	2	17
	1:1	39	32	29	42	41	38	18	239
제주	소계	11	11	13	12	8	5	4	64
	기초	2	1	1					4
	1:1	9	10	12	12	8	5	4	60
울산	소계	9	11	12	12	9	12	9	74
	기초	1	2	2	1		1		7
	1:1	8	9	10	11	9	11	9	67
기타 특·광역시	소계	10	11	12	9	6	7	5	60
	기초	0	0	1	0	0	0	0	1
	1:1	10	11	11	9	6	7	5	59

주: 1) 기초 교육에서 특화 교육을 시행한 농협은 따로 구분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특화 교육을 실시한 지역농협의 개수는 이 표에 포함되지 않음.

2) 기타 특광역시에는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가 포함됨.

3) 기타 특·광역시에서 대구만 기초 농업교육과 1:1 맞춤형 교육을 모두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1:1 맞춤형 교육만 실시하였음.

4) 대구의 지역 농협에서 기초 농업 교육 중 특화 교육을 2014~2019년까지 시행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역농협은 알 수 없어, 위의 표에 교육을 실시한 농협 수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농협중앙회(2013~2019).

2.2. 성과 평가

○ 현행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대한 성과 평가 지표는 ‘교육 수료 인원’과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임.

– 2018년부터는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 수료 인원’과 함께 사업성과 지표에 반영하고 있음. 사업 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 수료인원 50%, 교육만족도 결과 50%임.

○ 앞에서 제시한 <표 3-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은 계획보다 13.3%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연도별 초과 달성도는 최저 4.6%(2018년 및 2019년)에서 최대 23.8%(2013년)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 동안에 기초농업교육은 계획보다 26.1%를,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계획보다 2.1%를 초과 달성하였음.

–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경우, 계획만큼 달성하지 못한 해는 2018년(달성률 93.4%)과 2019년(달성률 77.6%)으로 나타남.

○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2010~2019)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 평가는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실시하였음.¹²⁾

– 조사 대상자는 기초농업교육 교육생, 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육생, 1:1 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¹³⁾ 또한, 2015년부터는 농업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교육만족도 평가는 2009, 2010년에 농협경제연구소에서 시행하였고, 2011,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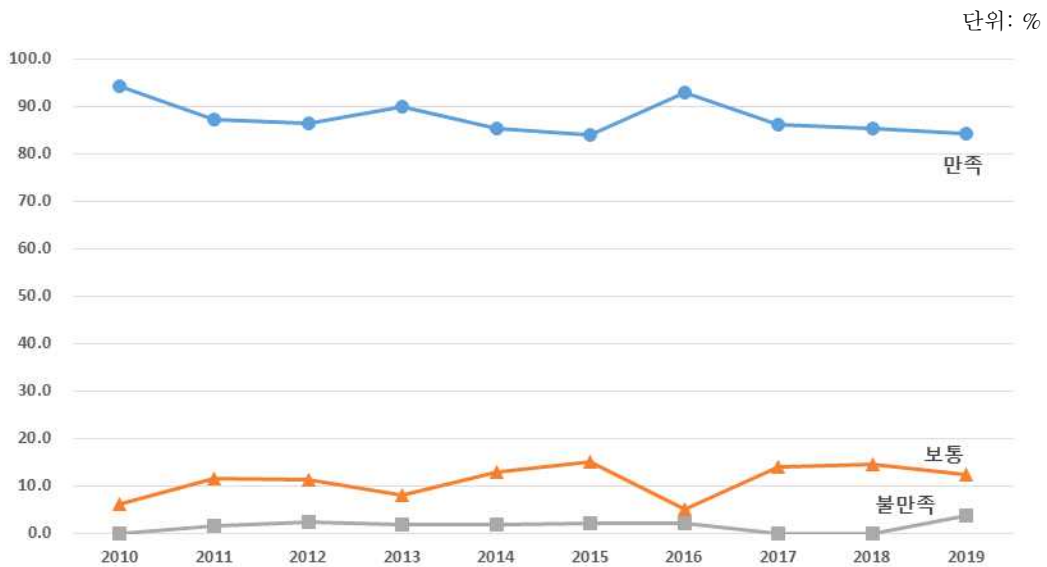
¹²⁾ 단, 이 연구에서는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였음. 2009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는 정보는 한국농어민신문 2009년 12월 23일 기사(이민여성농업인 1:1 농업교육 ‘만족도 높다’)에서 확인하였으나 현재 조사 보고서를 찾을 수 없음.

¹³⁾ 기초 농업교육 강사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년에는 전남대학교, 2013년에는 농업경제학회, 2014년 농식품정책학회¹⁴⁾, 2015년~2019년까지는 민간 조사업체가 진행하였음.

- 조사 기간 동안 교육만족도는 기초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육생 모두 84% 이상 수준(다만, 2011년 맞춤형 농업교육 만족 비율은 71.9%이었음)으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3-4 및 그림 3-5>.

<그림 3-4> 기초농업교육 만족도(201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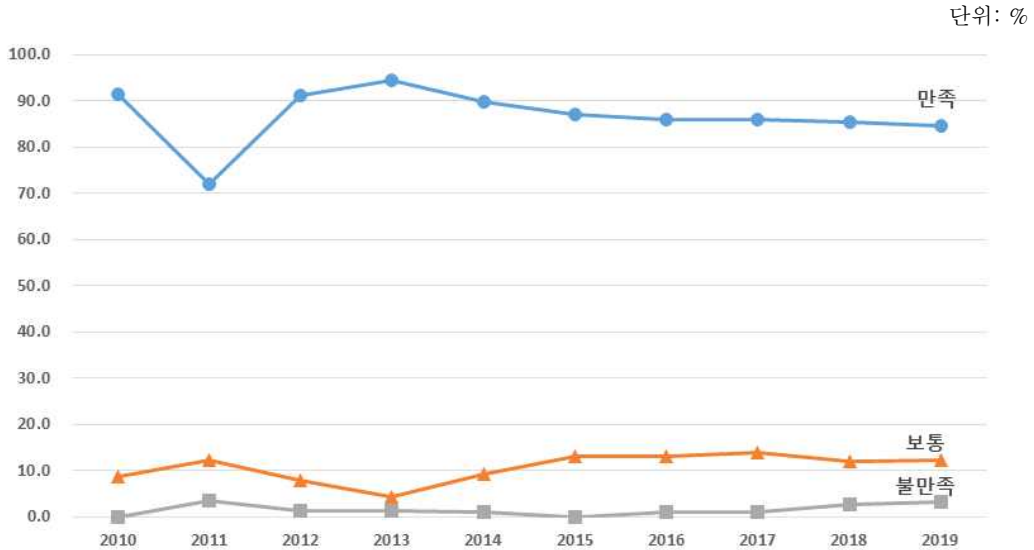


주: 만족은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에 응답한 비율은 합이고, 보통은 '보통'의 비율이며, 불만족은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임.

자료: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각 년도(2010~2019).

14) 2011~2014년간에는 전남대학교 강혜정 교수팀에서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그림 3-5> 1:1 맞춤형 농업교육 만족도(2010~2019년)



주: 만족은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에 응답한 비율은 합이고, 보통은 '보통'의 비율이며, 불만족은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임.

자료: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각 년도(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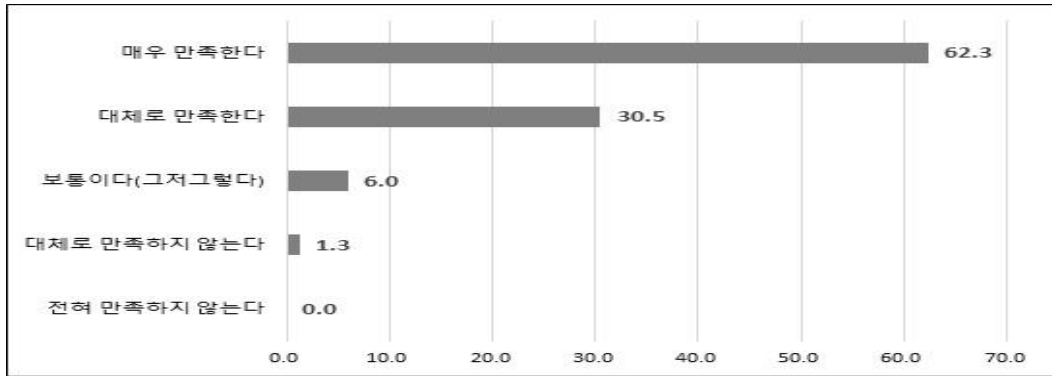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생의 전반적 교육 만족도(2020년)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단계별) 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90% 이상이 농업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3-6 및 그림 3-7>.
-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가족 유형,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 교육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연령, 가족 유형, 한국 거주기간,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표 3-10>.
-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가족 유형,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 교육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가족 유형, 학력, 한국 거주기간,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음<표 3-11>.

<그림 3-6> 기초(단계별)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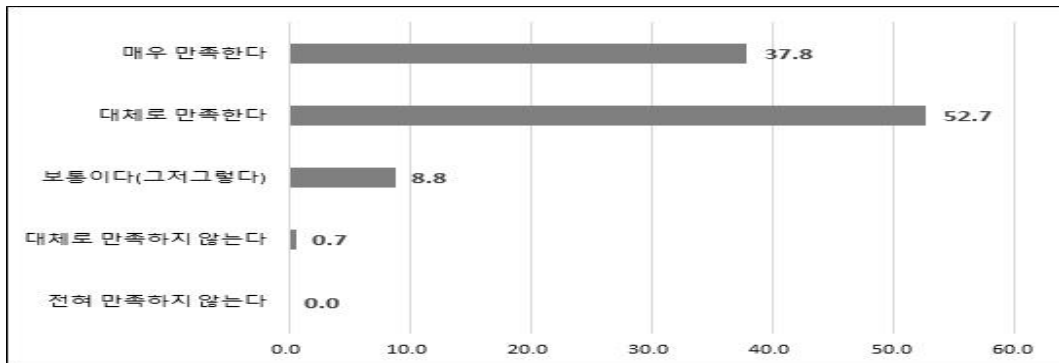
단위: %, N=151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그림 3-7>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N=148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표 3-10> 사회경제적 특성별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전반적 교육 만족도		계	통계
		보통 이하	만족		
학력	중졸 이하	7(17.5)	33(82.5)	40(100.0)	$\chi^2 = 8.28$ $df=2$ $p < .05$
	고졸	3(4.2)	68(95.8)	71(100.0)	
	전문대졸 이상	1(2.6)	37(97.4)	38(100.0)	
	계	11(7.4)	138(92.6)	149(100.0)	
한국어 실력	보통 이하	10(11.0)	81(89.0)	91(100.0)	$\chi^2 = 4.55$ $df=1$ $p < .05$
	잘함	1(1.7)	58(98.3)	59(100.0)	
	계	11(7.3)	139(92.7)	150(100.0)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표 3-11> 사회경제적 특성별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전반적 교육 만족도		계	통계
		보통 이하	만족		
연령	30대 이하	13(13.5)	83(86.5)	96(100.0)	$\chi^2 = 5.06$ $df=1$ $p < .05$
	40대 이상	1(2.0)	49(98.0)	50(100.0)	
	계	14(9.6)	132(90.4)	146(100.0)	
한국어 실력	보통 이하	11(15.3)	61(84.7)	72(100.0)	$\chi^2 = 5.54$ $df=1$ $p < .05$
	잘함	3(3.9)	73(96.1)	76(100.0)	
	계	14(9.5)	134(90.5)	148(100.0)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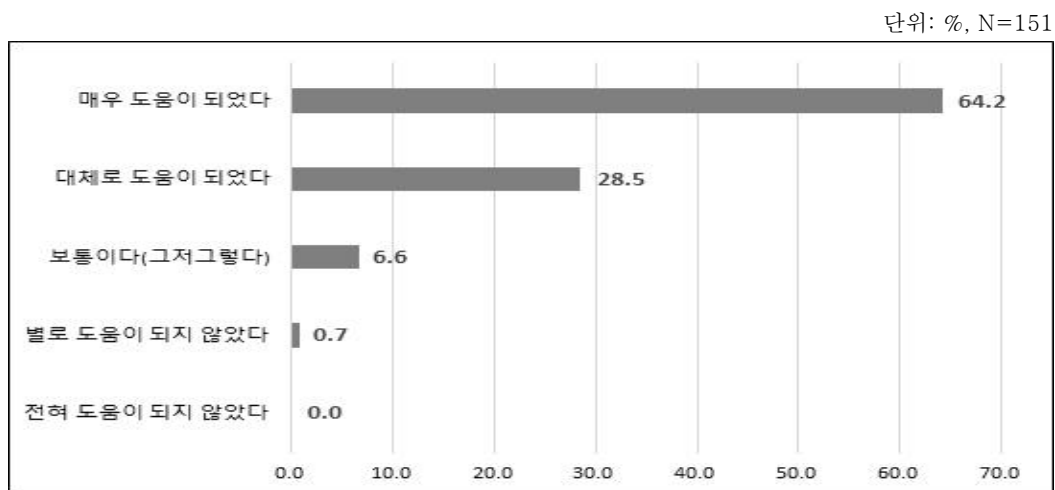
○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정착하고 농사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되었다(64.2%)’,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28.5%)’, ‘보통이다(6.6%)’ 순으로 응답하였음<그림 3-8>.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없었음.

–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92.7%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이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정착하고 농사일을 하는 데 도움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가족 유형,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의 도움 여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으나, 연령, 가족 유형, 학력, 한국 거주기간,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표 3-12>.

<그림 3-8>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의 도움 정도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표 3-12> 사회경제적 특성별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1:1 맞춤형 농업교육 도움 정도		계	통계
		보통 이하	도움		
한국어 실력	보통 이하	10(11.0)	80(88.9)	90(100.0)	$\chi^2 = 4.62$ $df=1$ $p < .05$
	잘함	1(1.7)	58(98.3)	59(100.0)	
	계	11(7.4)	138(92.6)	14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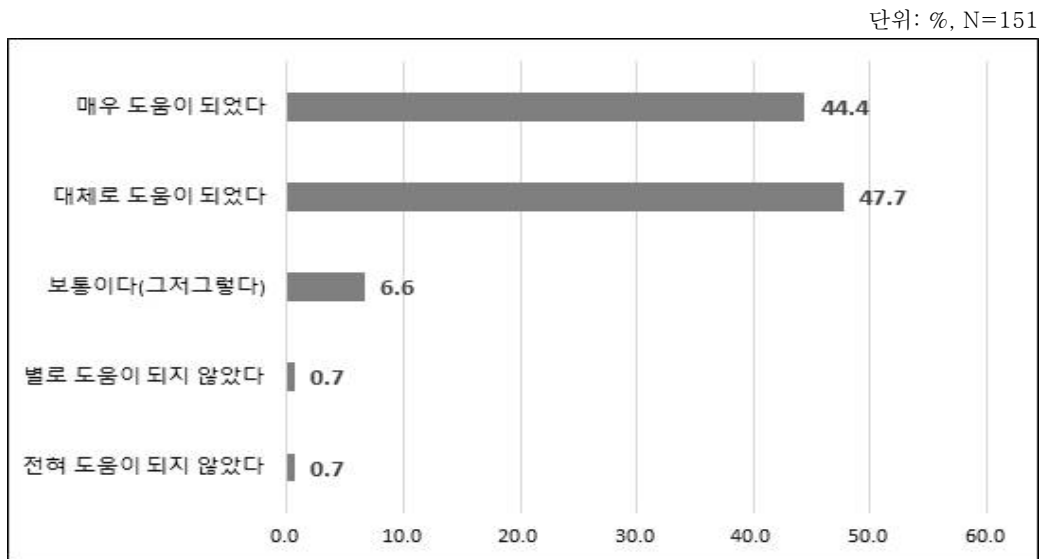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정착하고 농사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47.7%)’, ‘매우 도움이 되었다(44.4%)’, ‘보통이다(6.6%)’ 순으로 응답하였음<그림 3-9>.

–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92.1%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1 맞춤형 농업교육이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정착하고 농사일을 하는 데 도움이 매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가족 유형,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도움 여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1:1 맞춤형 농업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으나, 연령, 가족 유형, 학력, 한국 거주기간,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표 3-13>.

<그림 3-9>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도움 정도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표 3-13> 사회경제적 특성별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1:1 맞춤형 농업교육 도움 정도		계	통계
		보통 이하	도움		
연령	30대 이하	11(11.2)	87(88.8)	98(100.0)	$\chi^2 = 3.89$ df=1 p < .05
	40대 이상	1(2.0)	50(98.0)	51(100.0)	
	계	12(8.1)	137(91.9)	149(100.0)	
한국어 실력	보통 이하	10(13.7)	63(86.3)	73(100.0)	$\chi^2 = 6.39$ df=1 p < .01
	잘함	2(2.6)	76(97.4)	78(100.0)	
	계	12(7.9)	139(92.1)	151(100.0)	
본국에서 농사 경험	없음	1(1.5)	68(98.6)	69(100.0)	$\chi^2 = 7.33$ df=1 p < .01
	있음	11(13.4)	71(86.6)	82(100.0)	
	계	12(7.9)	139(92.1)	151(100.0)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2.3. 우수 사례

- 우수 사례는 전문영농, 6차 산업화, 지역사회 참여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음.

2.3.1. 전문영농 부문

□ 충북 진천 황티쿱(덕산농협)

- 출신국가는 베트남이고, 한국생활 14년차임.
- 수박농사는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는 비닐하우스 10개 동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있음.
- 기초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다문화여성대학 등의 교육을 받았음.
- 20년 이상 수박농사를 해온 후견인으로부터 수박농사에 대한 모든 것으로 전수받았음.
- ‘명품 수박’을 키워내는 ‘수박 엄마’로 불리고 있음.
- 남편도 아내를 적극 도와 과외선생님까지 두고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운전도 가르쳐 줌.
- 농한기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이중 언어 교육도 하고 있음.

□ 전남 담양 김윤희(담양농협)

- 출신국가는 베트남이고, 연령은 33세
- 베트남에서 부모님과 쌀농사를 지었음.
- 남편과 함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딸기와 멜론을 재배함.
 -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들은 11세임.
-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통해서 농사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정보도 얻고, 여러 명의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다고 함.
- 남편의 어깨너머로 배운 농사기술로는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1:1 맞춤형 농업교육

을 통해서 농사기술에 대한 갈증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함.

-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영농교육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주어 좋았다고 함.
-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으면서 농업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함.

□ 전북 완주 조미진(고산농협)

- 출신국가는 베트남이고, 연령은 34세
 - 2009년에 한국에 옴.
- 2016년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작고함.
- 딸(10세)과 아들(8세)을 키우면서 2천여 평의 시설하우스(9동)에서 수박, 배추, 방울토마토, 양배추 등을 재배하고 있음.
- 다문화여성대학,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았으며, 2020년에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을 받고 있음.
- 우수한 품질의 수박, 배추 등을 생산하여 고산농협 로컬푸드에 출하하고 있음.

□ 제주 애월읍 홍은주(애월농협)

- 출신국가는 베트남이고, 연령은 34세
 - 2006년에 한국에 옴.
- 시어머니와 남편, 중학교 1학년인 아들,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있음.
- 2013년에 배우자와 귀농을 하여 애월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주요 작목은 쪽파(3,000평),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비트 등 양채류(5,000평), 초당옥수수(2,000평) 등임.
- 2010년에는 다문화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여러 학교에서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을 함.
- 다문화여성대학 등 애월농협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였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교육을 받았음.
- 경찰서, 출입국관리공단 등에서 통역도우미 활동도 함.

○ 2019년에는 애월읍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읍민대상(다문화가정 부문)을 수상함.

2.3.2. 6차 산업화 부문

□ 경남 함양 김예진(함양농협)

○ 출신국가는 네팔이고, 한국생활 14년차임.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2017년)을 받았고, 함양의 농산물로 만든 ‘오색양갱’을 개발하여 2017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워크숍에서 대상을 받았음.

－ 오색양갱은 오미자, 복분자, 단호박, 연잎, 산삼, 한천(우뭇가사리)로 만들었음.

○ 2019년에는 ‘제11회 하나 다문화가정 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음.

○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강사, 함양경찰서 및 119 민간 통역사, 외국인 명예경찰대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 2019년에는 부산디지털대학교 복지상담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음. 또한, 네팔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가족봉사단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정착 초기결혼이민여성들의 후견인(멘토)로서도 활약하고 있음.

□ 전남 순천 배수빈(순천농협)

○ 출신국가는 베트남이고, 연령은 34세

－ 2013년에 한국에 옴.

○ 베트남에 여행을 온 사람(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으며, 한국생활은 처음에는 전남 광양에서 하다가 순천으로 이동하여 정착하였음.

○ 2015년 무렵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 가던 중에 순천의 봄부터 가을까지의 날씨가 베트남과 비슷하다고 느껴 모닝글로리(공심채)를 키우게 되었음.

○ 처음에는 2014년~2015년에 한국에 들어오신 부모님과 함께 가족만 먹으려고 모닝글로리를 재배하였으나 주변 지인들이 좋다고 해서 재배 면적을 점차 넓히게 되었음.

- 모닝글로리를 시작으로 베트남고추, 고수, 차요테(박과의 여러 해 살이 식물), 베트남가지, 그린빈스(깽질콩), 티라민트, 베트남호박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였음.
- 순천농협외 다문화여성대학 등에 참여하였으며, 순천농협에서 기후 변화와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아열대 작물에 관심 있는 농업인 조합원의 베트남 농업연수도 다녀와 현지 농업기술을 습득하였음.
-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아열대 채소를 판매하였으나, 한계가 있어서 페이스 북을 통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게 됨.
- 현재는 3,00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0여건의 택배를 보내고 있음. 구입을 자주 하는 고객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함. 그리하여 연간 1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경남 함양 라마다와 돌마(함양농협)

- 출신국가는 네팔이고, 연령은 32세
 - 2008년에 한국에 옴.
- 가족사항은 남편과 아들(10세), 딸(6세)
- 영농사항
 - 밭 6천평, 곳감 10동, 감말랭이 3,000kg, 옥수수 2,000평, 무 2,000평, 고사리 1,000평
 - 무시래기, 각종 건나물 및 약초를 가공함.
- 생산한 농산물은 로컬푸드, 함양군소평물, 인터넷 오픈 마켓 등에 납품하고 있음.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을 이수하면서 접한 SNS로 '지리산뚝순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정도임.
 - 1:1 맞춤형 농업교육, 다문화여성대학 등의 교육도 받았음.
- '주간함양'의 '객원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전국 우리말대회에서 '으뜸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모범다문화가정상'을 수상함.

2.3.3. 지역사회 참여 부문

□ 강원 횡성 리리벳(횡성농협)

- 출신국가는 필리핀이고, 연령은 49세임.
 - － 2002년에 한국에 옴.
- 바깥세상과 교류 없이 집에서만 지내다가 1:1 맞춤형 농업교육(2018년)을 받으면서 주변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됨.
- 텔레비전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으로 한국말을 주로 익혔음.
- 현재 논농사(1,500평)와 밭농사(1,500평)를 하고 있음.
- 필리핀에서 벼,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농사일에는 익숙했음.
- 후견인은 필리핀에서 보지 못했던 고추와 마늘과 같은 밭작물의 재배 요령을 잘 알려주고, 가정사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었음.
- 각종 밀반찬, 감자떡, 감자탕 등을 잘 만듦.

□ 충북 진천 조연(진천농협)

- 출신국가는 중국이고, 연령은 42세
 - － 2004년에 한국에 옴.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농업실습, 다문화여성대학 등의 교육을 받았음.
- 이 밖에 가베지도사 양성과정, 여성대학, 바리스타과정, 결혼이민여성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등을 진천농협에서 받았음.
- 고향주부모임에 가입하여 감사를 역임하고, 진천농협 다문화합창단 단장, 진천농협 다문화모임 회장 등을 맡음. 그리고 소비자 및 어린이 농산물 체험행사에서 보조강사로 활동함.
- 결혼이민여성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인 ‘행복모음카페’를 운영함.
- 2016년에는 우수 이민여성농업인 농협중앙회장상을 수상함.

□ 전남 나주 최영숙(남평농협)

○ 출신국가는 중국이고, 연령은 47세

– 2001년에 한국에 옴.

○ 길림성 연변이 고향이고, 본국에서 영농 경험은 없음.

○ 결혼이민여성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은 총 3년을 받았음.

– 2013년에 처음으로 교육을 받았고, 2019년에도 교육을 받았으며, 2020년에도 받고 있음.

○ 밭 600평과 비닐하우스 600평에서 딸기, 고추, 엽채류 등을 생산하고 있음.

○ 2007년에 풍산3구 마을 부녀회장으로 추천되어 13년 동안 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다도면 부녀회단장을 맡아 25개 마을 부녀회를 총괄하고 있음.

○ 2012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고, 2016년부터는 다도면 의용소방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남평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으로 활동 중임.

○ 2016년에는 농협중앙회 주체 다문화가족 합창대회에 가족들이 참가하여 다수의 상을 받았음.

○ 2019년에는 농협중앙회장상(우수 이민여성농업인상)을 받음.

○ 2019년부터 함양농협의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모임’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음.

3. 문제점

3.1. 교육 과정 전반

□ 예산의 정체·감소

○ 2009년 4억 2,6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15억 2,600만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부터 13억 6,600만 원으로 감소하여 2019년까지 이 금액이 유지되었음.

○ 기초농업교육의 예산은 2010년 7억 5,000만 원에서 2014년 9억 6,000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19년 7억 4,900만원으로 감소되었음.

○ 다만,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예산은 2009년 4억 2,6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3년까지 이 금액이 유지되었음. 이후에 2015년에 5억 6,6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6억 1,700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필수과정은 너무 많고, 선택과정은 선택의 폭이 좁음.

○ 필수과정(농업정책 교육 3시간, 양성평등 교육 3시간, SNS활용 교육 6시간, 농산물 생산유통 교육 9시간, 찾아가는 마을교육 3시간, 연말 간담회 3시간)이 너무 많다는 의견임.

－ 양성평등 교육은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선택과정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너무 한정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 선택과정: 기초과정은 전통식품 교육 12시간, 농업 선진지 견학, 역사학습이고, 심화과정은 농업 선진지 견학, 지역멘토 강연, 농기계 교육, 6차 산업 심화과정임.

□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을 실행한 농협이 극소수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을 농협의 수는 2013년에 38개로 가장 많았고 이후에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12개 농협으로 감소함.

○ 2020년에는 16(15)개 농협에서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을 실시함.

□ 단계별 농업교육의 신규 교육생의 모집이 어려움

○ 신규로 농촌에 유입되는 결혼이민여성의 절대 수가 줄어들고 있음.

- 읍·면사무소의 관련 자료는 최신 자료의 갱신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도 잘 되지 않고 있음.
- 교육생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
- 어느 정도 한국사회에 적응한 사람은 비농업 분야 취업을 선호함. 지역농협별 교육보다는 시군 단위 또는 권역별 교육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음. 현재도 권역별 교육이 가능하지만 잘 하지 않음. 다른 조합 소속의 결혼이민여성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임(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 더구나 신규 교육생들은 중도에 교육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
- 대체로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은 신규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어렵지만,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신규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어렵지 않음.
- 성과지표의 일부가 부적합
 - 현행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대한 성과지표는 ‘교육 수료인원’과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임.
 - ‘교육 수료인원’은 신규로 농촌에 유입되는 결혼이민여성의 절대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성과지표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음(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강사, 관련 전문가 등).

3.2. 교재 관련

□ 용어나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교재(특히, 단계별 농업교육)의 내용이 결혼이민여성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전문적이어서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의견임(교육생, 강사, 교육 담당자, 관련 전문가).

－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어가 너무 어려웠다는 응답 비율은 기초(단계별)농업교육은 45.6%,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40.1%로 나타남. 그리고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는 응답 비율은 기초(단계별)농업교육은 22.1%,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19.0%로 나타남<표 3-14, 표 3-15>.

<표 3-14> 기초(단계별)농업교육 교재에 대한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명, %, N=136

교재 관련 어려움	빈도	비율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30	22.1
용어가 너무 어려웠다	62	45.6
일부 내용이 부실했다	7	5.1
교재가 강의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9	6.6
교재의 분량이 너무 많았다	22	16.2
기타	17	12.5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표 3-15> 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재에 대한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명, %, N=148

교재 관련 어려움	빈도	비율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27	19.0
용어가 너무 어려웠다	57	40.1
일부 내용이 부실했다	5	3.5
교재가 강의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37	26.1
교재의 분량이 너무 많았다	19	13.4
기타	11	7.7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 너무 어려운 내용 또는 용어의 예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1」 : ① 작부체계, ② 토양의 3상, ③ 경장, ④ 과번무, ⑤ 도장, ⑥ 물관부, ⑦ 버미쿨라이트, ⑧ 보비력, ⑨ 비질 현상, ⑩ 분변토, ⑪ 삼식, ⑫ 숙기, ⑬ 실생법, ⑭ 심고, ⑮ 완료성 비료, ⑯ 장일, ⑰ 적심, ⑱ 중륙, ⑲ 침중, ⑳ 화아 분화 등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2」 : ① 화채류, ② 경채류, ③ 춘화 현상, ④ 속효성 비료, ⑤ 관수, ⑥ 점적 관수, ⑦ 지중 관수, ⑧ 보식, ⑨ 중경, ⑩ 배토, ⑪ 선충, ⑫ 피복 자재, ⑬ 수경재배, ⑭ 교호작, ⑮ 주위작, ⑯ 엽소현상(백합), ⑰ 브레스팅(백합)
- 「1:1 맞춤형 농업교육 I~V」 : ① 밥밀용(콩의 용도), ② 침지(벼), ③ 휴립줄뿌림(벼), ④ 휴립광산파(콩), ⑤ 침관 수해(벼), ⑥ 자탈형 콤바인, ⑦ 트랙터용 굴취기, ⑧ 낫추 만들기(과수·과채), ⑨ 교목 만들기(과수·과채), ⑩ 정지전정(사과), ⑪ 적과(과수과채), ⑫ 중경제초기, ⑬ 비파괴선별기(과수·과채), ⑭ 구굴기(원예·작물), ⑮ 저온추대(원예·작물), ⑯ 액아 발생(원예·작물), ⑰ 개갑단계(인삼)

○ 너무 전문적이어서 불필요한 내용의 예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1」 : ① 작물별 표준 소득 규모, ② 주요 채소별 예상 수확량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2」 : ① 공예 작물의 분류(섬유, 유료, 전분, 당료, 약료, 기호 작물), ② 하고 현상, ③ 분수 관수, ④ 살수 관수, ⑤ 파이토플라즈마, ⑥ 수경재배의 종류(분무형, 담액형, 박막형, 배지물 수경), ⑦ 종자 번식의 장단점, ⑧ 영양 번식의 장단점
- 「1:1 맞춤 농업교육 I~V」 : ① 벼의 계통 분류(오리자 사바타, 오리자 글라베리마), ② 벼의 까락 유무(무망종, 유망종), ③ 밀의 품종별 적응 지역, ④ 보통밀의 전파 경로, ⑤ 밀의 품종(28개)별 주요 특성, ⑥ 과수·과채의 나무 모양 만들기, ⑦ 백합 무성(영양체)번식의 종류(자구번식, 주아번식, 분구법, 인편번식, 조직배양)

○ 교재별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의 예

- 한국 농업의 이해, 농업의 역할, 농사 절기, 세시 풍속, 토양의 구조 등

□ 관련 통계자료가 너무 오래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상당수 있음.

○ 관련 통계자료가 너무 오래된 경우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1」 : ① 농가 인구 및 소득 관련 통계치가 2013년 및 2012년 자료임. ② 귀농·귀촌 관련 통계도 2014년 자료임. ③ 한국 농업의 현황 통계도 2010년 자료임.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2」 : ① 국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 통계도 2012년 자료임. ② 국가별 유기농업 재배 면적 통계도 2012년 자료임.
- 「1:1 맞춤 농업교육 I~V」 : ① 한우 국내 사육 현황 통계가 2006년 자료임. ② 돼지고기 소비량 변화 통계도 2004년 자료임. ③ 흑염소 국내 사육 현황 통계도 2012년 자료임.

○ 관련 내용이 부실한 경우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1」 : ① 한국 농업의 이해, ② 농업의 역할, ③ 한국 농업의 현황과 전망, ④ 농식품의 새로운 동향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2」 : ① 보식과 숙기, ② 멀칭
- 「1:1 맞춤형 농업교육 I~V」 : 농업인과 건강(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농부증, 시설 하우스병 소개)

□ 교재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교재의 경우, 교육생들에게 배포되고 있지만 교육 담당 강사들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강의는 본인이 작성한 유인물, 파워포인트 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생들도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교재를 가끔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음.

○ 갑자기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필수과목으로 인해서 기존 교재의 활용도가 떨어지기도 함.

□ 번역판 교재의 활용도에서 지역별 편차가 큼.

○ 2020년 기준 4개 국가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교재를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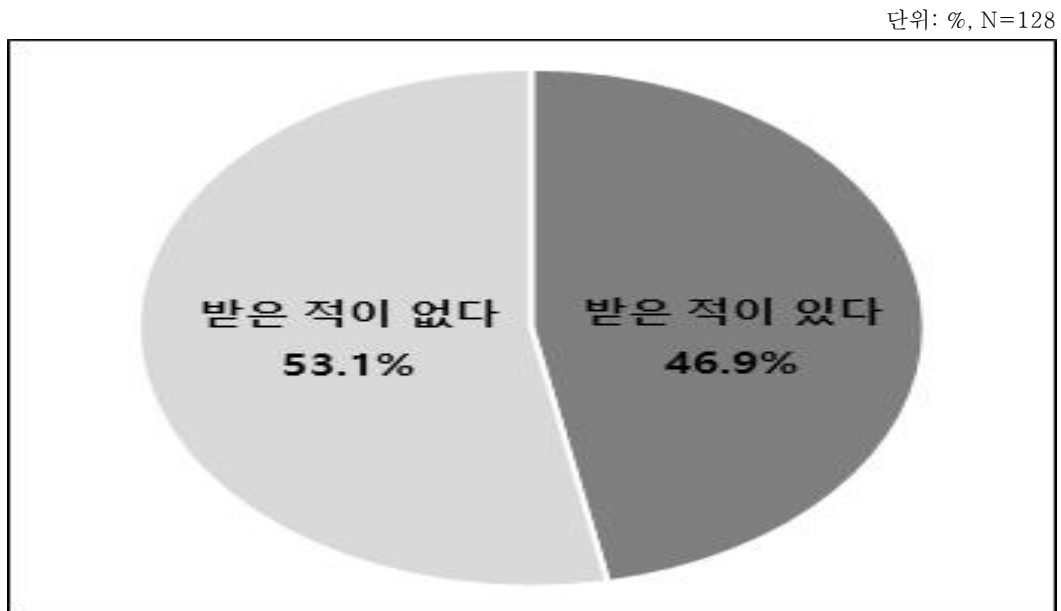
- 베트남어(2013년~), 중국어(2014년~), 필리핀어(2014년~), 캄보디아어(2019년~)

○ 번역판 교재는 지역농협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별로 활용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국 언어로 서술된

교재를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은 46.9% <그림 3-10>,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41.2%임 <그림 3-11>. 교육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본국 언어로 번역된 교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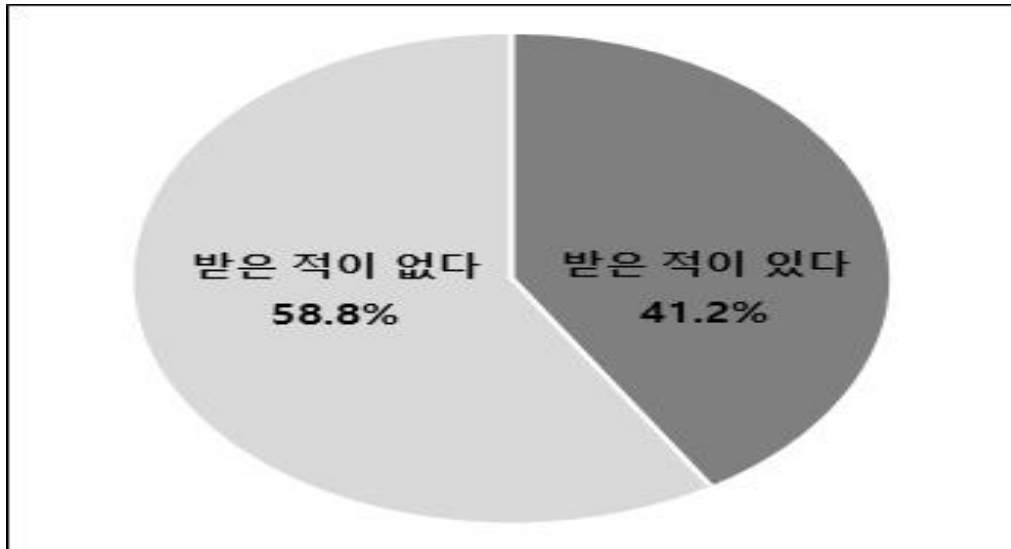
<그림 3-10> 본국 언어로 서술된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교재 이용 여부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그림 3-11> 본국 언어로 서술된 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재 이용 여부

단위: %, N=136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 태국, 몽골, 알제리 등과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국적 분포가 소수인 경우에는 번역판 교재가 아예 없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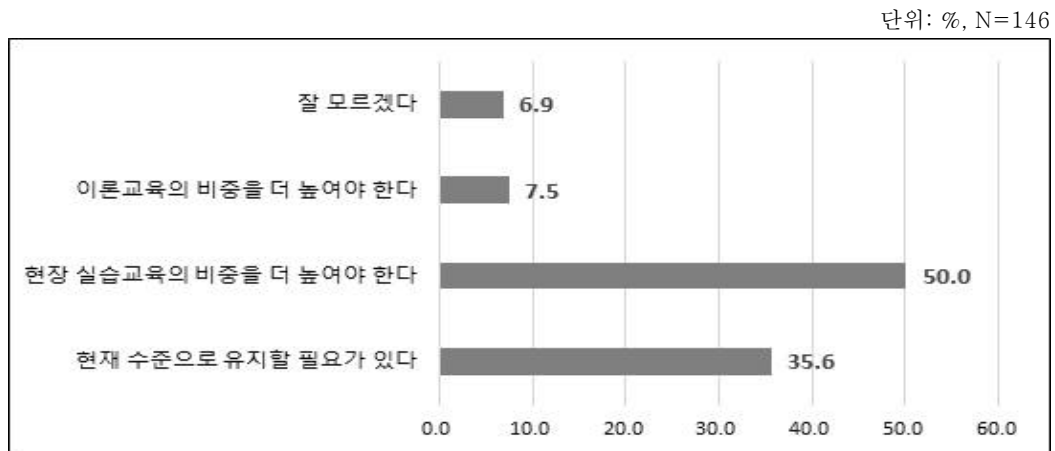
3.3. 교육방식 관련

- 실습교육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나뉘짐.

-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육생들은 대다수가 실습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그림 3-12>.

-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후견인(멘토)들도 이론교육보다는 실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림 3-12> 기초(단계별)농업교육에서 이론과 실습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가족 유형,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의 이론과 실습교육의 비중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본국에서 농사 경험이 있을수록 현장 실습교육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으나, 가족 유형,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표 3-16>.

<표 3-16> 사회경제적 특성별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의 비중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이론·실습교육의 비중에 대한 의견				계	통계
		현재 수준 유지 필요	실습교육 비중 제고	이론교육 비중 제고	잘 모르겠다		
연령	30대 이하	41 (43.2)	41 (43.2)	6 (6.3)	7 (7.4)	95 (100.0)	$\chi^2 = 7.53$ df=3 p < .05
	40대 이상	11 (21.6)	32 (62.8)	5 (9.8)	3 (5.9)	51 (100.0)	
	계	52 (35.6)	73 (50.0)	11 (7.5)	10 (6.9)	146 (100.0)	
학력	중졸 이하	12 (31.6)	13 (34.2)	10 (26.3)	3 (7.9)	38 (100.0)	$\chi^2 = 30.76$ df=6 p < .001
	고졸	25 (36.2)	36 (52.2)	1 (1.5)	7 (10.1)	69 (100.0)	
	전문대졸 이상	15 (39.5)	23 (60.5)	0 (0.0)	0 (0.0)	38 (100.0)	
	계	52 (35.9)	72 (49.7)	11 (7.5)	10 (6.9)	145 (100.0)	
본국에서 농사 경험	없음	24 (33.8)	32 (45.1)	10 (14.1)	5 (7.0)	71 (100.0)	$\chi^2 = 11.06$ df=3 p < .01
	있음	27 (37.5)	40 (55.6)	0 (0.0)	5 (6.9)	72 (100.0)	
	계	51 (35.7)	72 (50.3)	10 (7.0)	10 (7.0)	143 (100.0)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 그러나 단계별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농협직원들은 교육과정에서 실습교육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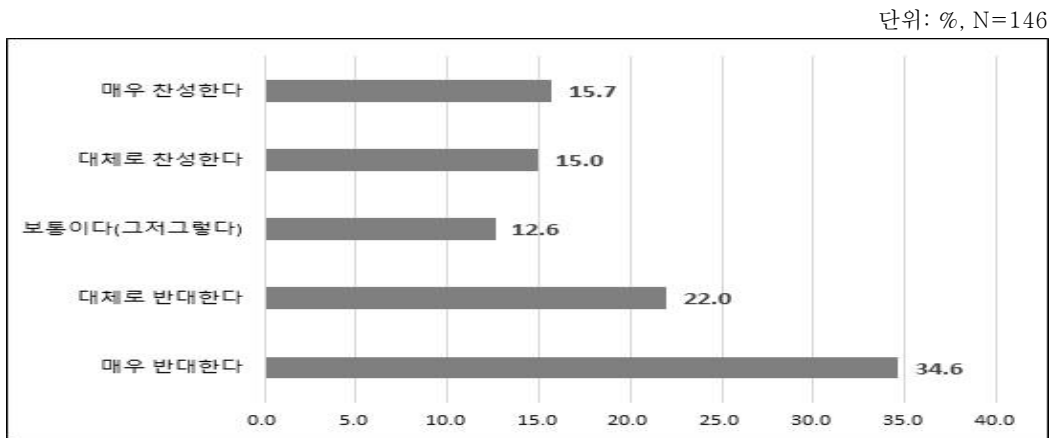
□ 비대면 온라인교육의 여건 미비

○ 교육생들은 비대면 온라인교육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반대’(34.6%), ‘대체로 반대’(22.0%), ‘매우 찬성’(15.7%), ‘대체로 찬성’(15.0%), ‘보통’(12.6%) 순으로 선호를 나타냈음. 즉, 응답자의 절반 이상(56.6%) 이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13>.

<그림 3-13> 기초(단계별)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부분적인 도입에 대한 의견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가족 유형,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 단계별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데 대한 의견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으나, 가족 유형,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표 3-17>.

<표 3-17> 사회경제적 특성별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부분적인 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부분적인 도입에 대한 의견			계	통계
		반대	보통	찬성		
연령	30대 이하	53 (63.9)	12 (14.5)	18 (21.7)	83 (100.0)	$\chi^2 = 7.43$ df=2 p < .05
	40대 이상	19 (45.2)	4 (9.5)	19 (45.2)	42 (100.0)	
	계	72 (57.6)	16 (12.8)	37 (29.6)	125 (100.0)	
학력	중졸 이하	10 (27.8)	5 (13.9)	21 (58.3)	36 (100.0)	$\chi^2 = 24.48$ df=4 p < .001
	고졸	36 (64.3)	9 (16.1)	11 (19.6)	56 (100.0)	
	전문대졸 이상	26 (78.8)	2 (6.1)	5 (15.1)	33 (100.0)	
	계	72 (57.6)	16 (12.8)	37 (29.6)	125 (100.0)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대하여 교육생들이 부정적인 이유<표 3-18>

-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69.4%): 집합교육이나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상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는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임.
- 집에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장시간 교육을 받기 힘들기 때문(45.8%)
-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38.9%)
-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27.8%)

<표 3-18>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부분적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명, %, N=72

반대 이유	빈도	비율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20	27.8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	50	69.4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28	38.9
본인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8	11.1
집에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는 장기간 교육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33	45.8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 결혼이민여성 가정에서는 비대면 온라인교육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컴퓨터 및 인터넷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고,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교육생 본인의 정보화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학령기 자녀들이 있어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 등이 있고 교육생 본인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하루에 3시간 동안 온라인교육을 받는 것은 농한기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함.

○ 교육 담당 강사나 농협의 업무 담당자들은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비대면 온라인 농업교육은 시기상조라고 인식함.

-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강사들이 결혼이민여성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봄.

□ 교육시간에 강사가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생들의 이해력이 떨어짐.

○ 결혼이민여성들은 필리핀이나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영어교육 수준이 생 각보다 낮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시간에 특히 외부의 전문 강사들이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도 있음.

○ 본국에서 영어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결혼이민여성들은 강사들이 교육시간에 섞 어서 사용하는 영어로 인해서 교육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도 함.

□ 교육 시기 및 시간의 어려움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이 주로 농번기에 실시되고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교육생들은 교육에 참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음.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이 아침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가사일, 자녀의 등교, 아침식사 준비 등으로 너무 바빠서 교육 시작시간에 참석하는데 어 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농협에 따라서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평일 주간 에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여하기가 더욱 힘든 실정 임.

□ 작목별로 세분화된 실습교육이 부족함.

○ 교육생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작목들은 교육생에 따라서 다양함.

○ 그러나 결혼이민여성 농업 실습교육은 몇 가지 작목에 대하여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음.

○ 교육생의 관심이 별로 없는 작목의 경우에는 실습교육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임.

3.4. 농업교육 담당 강사 및 후견인 관련

□ 전문가를 섭외하기 어려움.

○ 농업교육 담당 강사에게 1일 최대 18만원의 수당(10만원+8만원) 밖에 줄 수가 없어서 지역 외부에서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함.

－ 3~4년 전부터 강사들에게 지급하던 교통비, 원고료 등이 없어졌다고 함.

○ 지역 외부의 전문가를 섭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농업교육 담당 강사는 지역 내에서 주로 섭외하고 있음.

－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시·군청, 지역농협 등의 관련 전문가를 주로 섭외함.

○ 주말에 교육을 할 경우에는 강사 섭외가 더욱 어려움.

－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주말에는 강의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전문가의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교육생들의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기도 함.

○ 특히, 농업정책, 양성평등 관련한 전문가의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함.

□ 1:1 맞춤형 농업교육 담당 후견인(멘토)에 대한 처우 미흡

○ 1시간 교육 당 1만 원(1일 3만원)이라는 수당이 10년 동안 그대로임.

○ 중산간지역의 경우, 이 금액은 차량 유류비에도 못 미치는 것임.

○ 아무리 후견인(멘토)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농업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수당은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임.

○ 후견인(멘토)은 교육생과의 식사비, 선물비 등으로 개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임.

3.5. 탁아와 교통편 관련

□ 영아 돌봄의 어려움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학령기 아동은 대부분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영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농협에 영아 돌봄 시설이나 보육 돌보미가 없고, 시부모, 남편, 친척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를 대동하여 교육을 받기도 함<표 3-19, 표 3-20>.

<표 3-19>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참여시 탁아 해결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N=136

탁아 해결 방법	빈도	비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냈다	70	51.5
시부모님이나 친척이 돌봐주었다	16	11.8
남편이 돌봐주었다	20	14.7
멘토(후견인)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았다	12	8.8
교육 장소에 데리고 다녔다	27	19.9
농협의 아이돌봄 시설을 이용했다	6	4.4
기타	15	11.0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표 3-20> 1:1 맞춤형 농업교육 참여시 탁아 해결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N=150

탁아 해결 방법	빈도	비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냈다	61	40.7
시부모님이나 친척이 돌봐주었다	30	20.0
남편이 돌봐주었다	31	20.7
멘토(후견인)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았다	13	8.7
교육 장소에 데리고 다녔다	25	16.7
농협의 아이돌봄 시설을 이용했다	1	0.7
기타	16	10.7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 불편한 교통편

○ 교육생이 자가운전을 못하는 경우에는 남편이나 시부모, 농협직원 등의 도움을 받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함<표 3-21, 표 3-22>.

○ 산간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교육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더욱 떨어짐.

<표 3-21> 기초(단계별)농업교육 참여시 교통편 해결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N=149

교통편 해결 방법	빈도	비율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	43	28.9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데려다 주었다	10	6.7
농협직원이 데려다 주었다	68	45.6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21	14.1
이웃이나 친구가 데려다 주었다	18	12.1
기타	5	3.4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표 3-22> 1:1 맞춤형 농업교육 참여시 교통편 해결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N=151

교통편 해결 방법	빈도	비율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	62	41.1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데려다 주었다	27	17.9
후견인(멘토)이 데려다 주었다	47	31.1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12	7.9
이웃이나 친구가 데려다 주었다	2	1.3
기타	4	2.6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3.6. 기타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농협 담당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농협 직원이나 지원인력들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는 없음.

○ 희생과 봉사, 소명의식에만 의존해서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한계가 있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들다보니 젊은 농협직원들이 맡기 싫어하는 기피업무가 되고 있음.

□ 결혼이민여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과 같은 결혼이민여성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부족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보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의 농촌 정착에 있어서 지역농협과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쟁관계로 생각하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음.

4. 소결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의 주요 목적은 후계 농업인력 육성과 농촌 정착 지원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은 기초(단계별) 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행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대한 성과 평가 지표는 ‘교육 수료 인원’과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임.
- 2009~2019년 기간 동안에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에서 농업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여성은 총 16,104명이며, 계획 대비 13.3%를 초과 달성하였음.
- 2009~2019년 기간 동안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는 기초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육생 모두 84% 이상 수준(다만, 2011년 맞춤형 농업교육 만족 비율은 71.9%이었음)으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설문조사(2020년) 결과에 따르면, 기초(단계별) 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의 90% 이상이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가족 유형,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 교육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실력 좋을수록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학업 성취도가 높아서 교육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추측됨.

-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가족 유형,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본국에서 농사 경험 유무)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 교육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한국어 실력 좋을수록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과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학업 성취도가 높아서 교육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추측됨.

○ 관련 우수사례는 전문영농, 6차 산업화, 지역사회 참여 부문으로 나누어 총 10가지 사례를 정리하였음. 우수사례들로부터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본인이 농협의 결혼이민여성 관련 여러 가지 교육(기초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다문화여성대학 등)을 성실하게 잘 수료하였음.
- 남편이나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음.
-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후견인 등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음.
- 본인의 특수한 능력(예를 들면, 통역, 번역, 외국요리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교육과정 전반: ① 예산의 정체·감소, ② 필수과정은 과목이 너무 많고, 선택과정은 선택의 폭이 좁음, ③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을 실행한 농협이 극소수, ④ 단계별 농업교육의 신규 교육생의 모집이 어려움, ⑤ 성과지표의 일부가 부적합.

- 교재 관련: ① 용어나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② 관련 통계자료가 너무 오래 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상당수 있음, ③ 교재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④ 번역판 교재의 활용도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큼.
- 교육방식 관련: ① 실습교육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나뉨, ② 비대면 온라인교육의 여건 미비, ③ 교육시간에 강사가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생들의 이해력이 떨어짐, ④ 교육 시기 및 시간의 어려움.
- 농업교육 담당 강사 및 후견인 관련: ① 전문가를 섭외하기 어려움, ② 전문가의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③ 1:1 맞춤형 농업교육 담당 후견인에 대한 처우 미흡.
- تاک아와 교통편 관련: ① 영아 돌봄의 어려움, ② 불편한 교통편
- 기타: ①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농협 담당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② 결혼이민여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

4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관, 교육생 등의 요구사항

1. 교육과정 전반

1.1. 예산 관련

○ 지난 10년 동안에 물가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예산은 정체되거나 축소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판단됨. 따라서 각종 단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전체 예산도 확대해야 할 것임(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운영 하면서 경비 및 인력이 부족하여 힘들다는 경우가 많음.

○ 1:1 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멘토)의 수당도 10년 동안 ‘1시간 당 1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데 향후에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함(지역농협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육생).

－ 중산간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의 수당 수준은 교통비에도 못 미친다고 함.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 직원 또는 지원 인력의 주말 또는 야간의 과외 활동에 대한 지원(수당)이 필요함(농협중앙회, 농협지역본부,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1.2. 필수·선택과정 관련

- 현재 필수과정의 과목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줄일 필요가 있음(초점집단면접(FGI) 및 심층면접 참석자 대다수의 의견임).
- 필수과정의 한 과목인 <양성평등 교육>은 남편이나 시부모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함.
 -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날에는 결석하는 교육생이 많다고 함.
 - 가족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명칭을 <가족관계 교육>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간담회는 현재는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도 1회 정도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음.
- 선택과정의 경우 지역농협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부 과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바라고 있음(지역농협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 선택의 폭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금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농업교육을 많이 원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전정(가지치기), 농업용 드론, 묘목 가꾸기, 꽃차의 생산 및 가공, 아열대 채소 재배, 일반 농산물 및 특수작물(예: 산삼)의 가공 관련 전문 교육이 필요함(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및 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육생).

1.3. 교육생 모집 관련

- 신규 교육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전입 정보에 관한 읍·면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지역농협 농업교육 담당자).
 - － 읍·면사무소의 관련 자료는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아서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정확한 명단의 제공이 필요함.

-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 기초교육을 마친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지역농협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 － 지역농협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 요일 및 시간 등에 대한 상호 협조가 필요함.

- 지역의 부녀회, 고향주부모임과 같은 여성 관련 조직의 도움을 받으면 신규 교육생의 모집이 한결 수월한 것으로 나타남(지역농협 농업교육 담당자).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의 경우, 한정된 지역농협(2020년 16개) 안에서 신규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은 한계가 많으므로 지역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몇 개의 지역농협이 합동으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지역농협 및 농협지역본부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 － 현재도 권역별 모집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조합 소속의 결혼이민여성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권역별 모집을 잘 하지 않고 있음.

- 지역의 다문화가족(특히, 남편, 시부모)을 대상으로 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음(단계별 농업교육 교육생, 지역농협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1.4. 성과지표 관련

- ‘교육 수료인원’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성과지표로 부적절하므로 이 지표 대신에 ‘삶의 질’ 관련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지역농협본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성과지표는 농업교육이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해야 할 것임(지역농협 농업교육 담당자)

2. 교재 관련

2.1. 교재의 개정

- 현행 교재가 너무 어렵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고, 관련 통계자료도 너무 오래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서 개정해야 함(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서 교육생, 강사, 업무 담당자 등이 일관되게 주장함).
 - 현행 교재를 좀 더 쉽게 개정하고 관련 부교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오래된 통계자료들은 모두 최신 자료로 교체해야 함.
 - 관련 내용이 부실한 경우는 보완을 하고, 중복된 내용은 조정해야 함.
- 교재의 개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함(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강사 등).
- 교재는 농협중앙회에서는 대략적인 지침만 주고 지역농협이나 농협지역본부 단위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임(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강사 등).
 - 지역농협별로 교재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

육 업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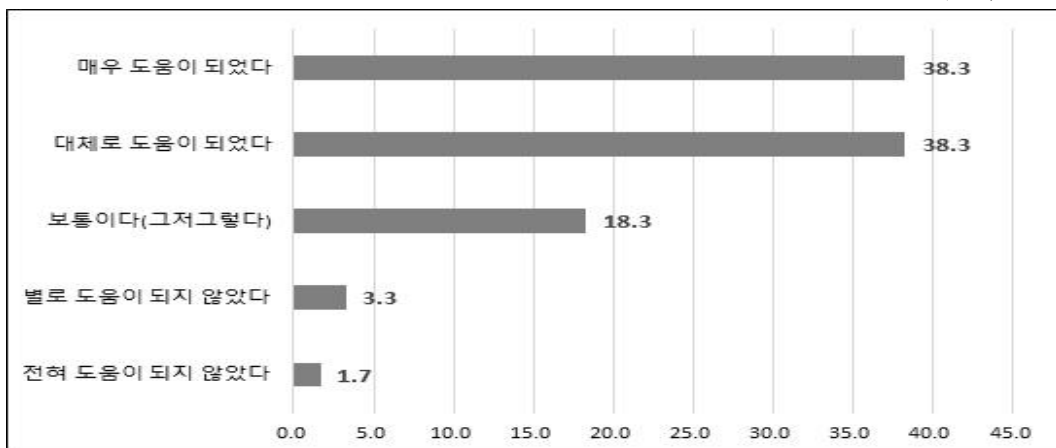
-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으로 내려 보내는 전국 단위의 교재는 아주 간략하게 해서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은 지역별로 특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에서 많았음.
- 향후 교재 개발에 있어서 동영상, 오디오 북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음(단계별 농업교육 교육생,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등).

2.2. 번역판 교재

-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 이상이 본국 언어로 번역된 교재가 농업교육에 도움이 되었다고 함<그림 4-1>.

<그림 4-1> 본국 언어로 서술된 교재의 농업교육 도움 정도

단위: %, N=60



자료: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설문조사 결과.

-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번역판 교재(4개국 언어)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지역농협과 해당 교육생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번역 대상 국가언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단계별 농업교육 교육생,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강사).
- 한국사회 정착 초기단계의 교육생에게는 본국어로 번역된 교재가 필요함. 교육생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번역판 교재의 유용성이 상당히 달라질 것임(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 영어 번역본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영어 수준이 대체로 낮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3. 교육방식 관련

3.1. 실습교육

- 단계별 농업교육의 경우, 교육생의 주된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소규모 그룹(5~6명)별로 특화된 실습교육이 필요함(단계별 농업교육 교육생,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강사 등).
- 실습교육은 반복학습이 중요함(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강사).
- 실습교육이 이론교육보다 교육생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습교육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음(단계별 및 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육생).

3.2. 비대면 온라인 교육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임.
 - 진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글교육을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시작하면서 컴퓨터 작동, 휴대폰 데이터 사용, 온라인교육 접속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점검, 수시상담, 방문 지도 등과 같은 사전준비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함. 실습교육도 필요한 재료와 설명서를 교육생의 집으로 보내주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대면 교육으로 한국농업방송(NBS)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장시간 비대면 온라인교육은 농한기에만 가능할 것임(1:1 맞춤형 농업교육 교육생).
- 비대면 온라인교육은 단시간(최대 1시간 정도)으로 해야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임(단계별 농업교육 교육생).
- 진천농협에서는 밴드를 활용하여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음. 밴드의 특성 상 1시간 이상이 되면 강의를 올리기가 어려움. 그래서 동영상을 6개로 나누어 올리고 있음. 진천농협에서 하고 방식은 밴드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서 교육생들이 수강을 하도록 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출석을 체크하는 것 등임(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 스마트폰교육, 밴드를 휴대전화에 깔아주는 것, 밴드교육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함.

3.3. 교육 시기 및 시간

- 교육 시기는 지역별로 가급적 농번기를 피해서 주로 농한기에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음(단계별 농업교육 교육생).

○ 그리고 교육은 평일 주간 보다는 주말에 실시하는 것을 선호함(단계별 농업교육 교육생, 1:1 맞춤형 농업교육생).

－ 평일 주간에 교육을 할 경우에는 오전 보다는 오후에 교육을 실시하기를 원함.

○ 1일 교육 시간(현재 3~4 시간)도 조금 줄었으면 좋겠음(단계별 농업교육 교육생).

4. 농업교육 담당 강사 및 후견인 관련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출강하는 강사들에게 일정 한도의 교통비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 비대면 교육의 경우, 동영상 강의의 준비 및 제작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의 지원이 필요함(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 단계별 농업교육에서 한국어가 서툴러서 교육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생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인 도우미(기존 ‘친정엄마맺기’의 엄마 등)를 농업교육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단계별 농업교육 교육생,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 전문가의 강의 내용이나 전문용어를 결혼이민여성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하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함(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5. 탁아와 교통편 관련

5.1. 탁아

○ 단계별 농업교육 참여 지역농협의 탁아시설에 대한 물품(예를 들면, 매트, 놀이 기구 등) 지원이 필요함(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 다양한 보육도우미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아이돌보미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아이돌보미는 개인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음(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5.2. 교통편

○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고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한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단계별 농업교육 교육생,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 교육생의 교통편을 돕는 교통도우미가 필요함(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 교육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면 좋겠음(단계별 농업교육 교육생,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6. 기타

6.1.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농협 담당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직원들의 승진, 상훈, 보수 등에서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함(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에서 몇 개의 지역농협이 생활권별로 권역별 교육

을 추진하여 신규 교육생을 모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가점이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임(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 그룹별(5~6명) 찾아가는 농업교육도 시도해보면 좋겠음(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 담당자).

6.2 결혼이민여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주요 관련 기관들(지역농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간의 상호교류 기회를 확대해야 함(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글교육, 강사 파견, 교육돌보미 등을 지원할 수 있음(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5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1.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의 목적 및 위상 재정립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의 목적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제공하여 후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현행 이 사업의 2가지 주요 목적(후계 농업인력 육성, 농촌 정착 지원) 중에서 ‘후계 농업인력 육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 ‘농촌 정착 지원’은 가급적 관련 기관의 기존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서는 농업 및 농촌에 특화된 것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함.
- 한국어교육은 가급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합교육이나 찾아가는 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함.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서는 기존 한국어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도록 함.

○ 농업기술에 관한 고급 수준의 교육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함.

1.2.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전국적 확산 기반 마련

○ 현행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은 1:1 맞춤형 농업교육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단계별 농업교육은 일부 지역농협(2020년 15개)에서만 운영함.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농업교육을 활성화해야 함.

- 단계별 농업교육의 경우, 1개 지역농협별로 운영하는 것은 한정된 교육 대상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생활권별로 몇 개의 지역조합이 합동으로 단계별 농업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농협 지역본부에서 도별로 권역을 3~4개로 나누어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조합과 농협 지역본부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함.

1.3.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업교육의 강화

○ 한국 정착기간, 연령, 가족 구성의 변화, 한국어 수준 등에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농업교육 수요나 애로사항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한국 정착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연령이 20대 정도이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전달과 농촌 정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육, 타아 지원도 중요함.

○ 한국 정착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며, 연령이 30대 정도이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중급 수준의 교육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소득 작목 중심의 심화 단계의 농업교육

○ 한국 정착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40대 이상이며, 장성한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고급 수준의 교육,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전문 농업교육, 지역사회 봉사 기회 확대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2.1. 성과 지표의 조정

○ 성과 지표는 프로그램 혹은 단위 사업의 목적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개념이 명확해야 하며, 측정할 수(Measurable)있어야 함(한국조세재정 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2017).

－ 성과 지표는 사업의 목적과 연계되어 있어야 함.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의 주된 목적은 ① 결혼이민여성을 후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② 이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현행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대한 성과지표는 ‘교육 수료인원’과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임.
- 농촌에 신규로 유입되는 결혼이민여성의 절대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수료인원’을 성과 지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들도 ‘교육 수료인원’은 성과 지표로서 문제가 있으므로 대체 성과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교육 수료인원’을 대체하는 성과 지표로는 먼저, ‘농업교육의 실질적인 도움 정도’를 들 수 있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이 교육생의 농촌정착과 농업 생산 활동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수료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과 지표로는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받은 교육생의 ‘교육 전·후의 농업기술 역량의 변화 정도’를 들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교육훈련 지원 사업에서는 성과 지표로 관련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 받기 전과 후의 역량 향상 비율을 성과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20).
 -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기 전·후 교육생의 관련 역량의 변화를 측정한 지표로는 농업경영활성화 컨설팅 사업의 성과 지표인 컨설팅 전·후의 매출액 증가율이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20).
-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과 관련한 추가적인 성과 지표로는 ‘지역사회 참여도’를 들 수 있음.
 - ‘지역사회 참여도’는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행사나 회의 그리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안)(2016)에 따르

면 귀농·귀촌인에 대한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성과 지표로 ‘마을 행사·회의 참여율’을 제시하였음.

○ ‘교육생의 교육만족도’는 성과 지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만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교육·훈련 사업에서도 교육생 만족도를 성과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20).
- 한국농수산대학교운영 사업의 성과 지표로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만족도를 성과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서도 성과 지표로 귀농·귀촌 교육 수료자의 교육 만족도를 사용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20)¹⁵⁾.

2.2. 교과 과정의 개편 및 농업교육 마일리지제도의 도입

○ 필수과목의 조정

- 현행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필수과목(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공통)은 농업정책, 양성평등, SNS 활용, 농산물 생산·유통, 찾아가는 마을, 연말 간담회로 구성됨.
- 필수과목이 너무 많다는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업정책, 양성평등, 농산물 생산·유통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일부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목의 조정

- 현행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의 선택과목 기초과정은 전통식품, 농업 선진지 견학, 역사학습이고, 심화과정은 농업 선진지 견학, 지역멘토 강연, 농기계, 6차 산업임.
- 선택과목의 경우 농협 지역본부나 지역농협에서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과목을 1~2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15) 두 건의 만족도 모두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고 있음.

○ 단계별 농업교육의 세분화

- 기초과정은 1년 교육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3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초과정은 초급, 중급, 상급 과정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 심화과정은 과정을 세분화 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3년 정도 연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
- 심화과정과 연계하여 농업 부문 전문 자격증(예를 들면, 농업용 드론, 농기계 운전 및 정비 관련 자격증)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마일리지제도의 도입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교육이수 시간에 따라 소정의 마일리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개인별 점수를 적립·관리하여 일정한 마일리지에 도달하면 인증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마일리지의 적립 유형은 기본 마일리지와 보너스 마일리지로 구분함.
- 기본 마일리지는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1개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교육이수 1시간당 1점을 부여함.
- 보너스 마일리지는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과 관련하여 상을 받거나 봉사활동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에 추가적으로 보너스 점수를 부여함.

2.3. 교재의 개정 및 번역

○ 교재 개정 작업반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

- 교재 개정 작업반의 구성 및 운영: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강사, 후견인, 교육생,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사업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담당자, 기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교재 개정 작업반(10명 이내)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교재 개정 작업반 운영과 연계하여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일부 교재(예를 들면, 단계별 농업교육의 기초과정 교재)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 교재의 외국어 번역

-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심층면접 등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의 본국 언어로 번역된 교재는 특히 정착 초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어 번역은 단계별 농업의 기초과정 교재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4. 다양한 부교재의 개발·보급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정규 교재 이외에 다양한 부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

- PPT 자료, 동영상, 사진, 농업·농촌 관련 용어집, 농사달력 등

○ 전국적으로 개발·보급할 것(예)

- 농업정책, 농촌정책, 양성평등 및 가족관계 개선 등

○ 지역농협 또는 권역별로 개발·보급할 것(예)

- 특화 작목의 재배, 지역의 역사·문화, 지역 특산물 등

2.5. 교육방식의 개선

○ 실습교육의 개선

- 작목별로 세분화된 실습교육: 교육생의 관심 품목별로 특화된 소규모(5~6명 정도) 실습교육을 강화
-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사회적 농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실습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함.

○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기반 조성 및 단계별 도입

- 본 연구의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접 등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비대면 온라인 교육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기상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교육, 인터넷 PC영상회의의 프로그램의 설치 및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함.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농협부터 우선 부분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 현 단계에서 지역농협에서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은 진천농협에서 2020년에 추진한 바가 있는 휴대폰의 밴드를 활용한 원격교육 방식임.
-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휴대폰의 밴드를 활용한 원격교육 방식은 전국 농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시기 및 시간의 탄력적 운영

- 교육 시기의 경우 지역별 농번기를 가급적 피하고 주말을 잘 활용하도록 함.
- 교육 시간은 단계별 농업교육의 경우 주중에 교육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오후에 교육을 하도록 함.

2.6. 탁아와 교통편 지원

○ 보육도우미 배치 확대 및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활용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영유아보육을 대신해주는 보육도우미의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배치를 확대함.
-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봄 지원 사업(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비용·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교육생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단계별 농업교육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의 탁아시설에 대한 물품 지원

- 지역농협의 기존 시설을 임시 탁아시설로 활용할 경우에 탁아에 필요한 필수 품목에 한정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셔틀버스 또는 교통도우미 운영

- 대중교통이 불편한 중산간지역의 교통소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또는 교통도우미를 제한적으로 운영

2.7.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들의 대한 처우 개선

○ 농업교육 강사들의 교통비 및 동영상 강의 제작 관련 비용 지원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위하여 일정 거리 이상의 장거리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후견인(멘토) 수당의 인상 및 후견인 육성의 체계화

- 지난 10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1:1 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의 수당(1시간 당 1만원)을 적정 수준(예를 들면, 1시간 당 1만 5,000원 정도)으로 인상해야 함.
-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후견인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함. 지역의 다양한 여성 농업인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수료한 모범 교육생들을 후견인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의 마련

- 인센티브제도(incentive system)는 성과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를 의미함(신동일 2010; 양재영·박영진 2020; 장인봉 2012; 조은경 2008; 차윤숙·김세웅 2016).
- 인센티브제도는 금전적 보상, 지위적 보상, 사회적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금전적 보상으로는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있고, 지위적 보상으로는 승진, 승급, 표창, 최우수 직원 선정 등이 있으며, 사회적 보상으로는 국내외 연수나 여행, 유급휴가 등이 있음(양재영·박영진 2020; 장인봉 2012; 조문식 2010).
- 현재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농협직원이나 지원인력들은 주말이나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부응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별로 없음.
- 따라서 농협중앙회, 농협 지역본부, 지역농협에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및 지원인력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8. 결혼이민여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 정기적인 모임, 합동교육, 강사 교류 등

○ 한국어교육의 보완

- 한국어가 서툰 정착 초기 교육생의 한국어교육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을 연계

2.9. 기타

○ 교육생 선발 기준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요조건으로 중시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교육생을 선발할 때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을 뽑도록 함.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기초과정이나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을 먼저 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홍보 강화

- 농업 관련 전문지, 지역신문
- 한국농업방송(NBS), 농업 및 농촌 관련 TV 프로그램 등
- 인터넷 포털 검색, SNS 등
- 다문화가족 관련 소식지 등
- 주민복지센터, 사회복지관, 고용센터 등에도 홍보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네트워크의 구축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교육생, 강사, 후견인, 사업 담당자, 농협의 다문화여성대학 졸업생 등을 연계하는 연합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원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실태 설문조사

- 교육생 -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림수산물부와 농협의 의뢰를 받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월

문의 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명예선임연구위 (061-820-2345)
	농업·농촌발전연구부	김정승 연구원 (061-820-2160)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응답자 주소	시·군	읍·면	

SQ1	귀하는 농협의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조사 중단
SQ2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을 받은 농협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1) 서울/경기/인천권	2) 강원도
		3) 충청권(충남, 충북)	4) 호남권(전남, 전북)
		5) 영남권(경남, 경북)	6) 제주도

Part A.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A01. 귀하는 한국에 오기 전에 본국에서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경험이 전혀 없다 2) 경험이 약간 있다 3) 경험이 많다

A02. 귀하는 현재 농사일을 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A03. 귀하는 현재 농사일이 아닌 수입(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예(무엇:) 2) 아니오

Part B. 기초(단계별) 농업교육 과정 전반

B01. 귀하가 결혼이민여성 기초(단계별) 농업교육을 받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한국농업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 2) 배우자 및 가족이 하는 농사일을 돕고 싶어서
- 3) 다른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대인관계를 넓히고 싶어서
- 4) 앞으로 내 농장을 경영하고 싶어서
- 5) 비농업 부문의 일을 그만두고 농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 6) 한국의 농촌 전통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 7)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 8) 가족 및 이웃의 권유로
- 9) 농협 직원의 권유로
- 10) 기타(무엇:)

B02. 귀하가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정착하고 농사일을 하는데 결혼이민여성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B03. 귀하께서는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 1) 집안일이 많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 2) 교통이 불편했다
- 3) 교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 4) 강의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 5) 강의내용이 농사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6) 강의가 재미없었다
- 7) 기타(무엇:)

B04. 귀하께서는 올해(2020년) 단계별(기초, 심화과정) 농업교육을 받았습니까?

- 1) 예 2) 아니오

B05.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을 총 몇 연차(회)를 받았습니까?

총 ()연차

B06. 귀하께서는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Part C. 교재 관련

C01.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교재와 관련하여 귀하가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 1)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 2) 용어가 너무 어려웠다
- 3) 일부 내용이 부실했다
- 4) 교재가 강의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 5) 교재의 분량이 너무 많았다
- 6) 기타(무엇:)

C02. 귀하께서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에서 본인 출신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교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C02-1. (문항 C02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만) 본인 출신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교재는 귀하가 농업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Part D. 교육방식 및 담당 강사 관련

**D01. 귀하는 현행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교육의 비중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2) 현장 실습교육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 3) 이론교육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 4) 잘 모르겠다

**D02.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반대한다
- 2) 대체로 반대한다
- 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찬성한다
- 5) 매우 찬성한다

**D02-1. (문항 D02에서 ①, ②에 응답한 사람만) 귀하가 현행 결혼이민여성 단계
별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 1)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컴퓨터, 인터넷, 와이
파이 등)이 없기 때문에
- 2)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
- 3)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 4) 본인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 5) 집에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는 장시간 교육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 6) 기타(무엇:)

D03. 결혼이민여성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집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귀하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 1)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 2) 대체로 이해할 수 없었다
- 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이해할 수 있었다
- 5)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Part E. 가사, 탁아, 교통편 등

E01. 귀하께서는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집안일(가사)을 주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1) 본인이 해야 할 일로 남았다
- 2)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도와주었다
- 3)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았다
- 4) 기타(무엇:)

E02. 귀하께서는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탁아(아이 돌봄) 문제를 주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냈다
- 2) 시부모님이나 친척이 돌봐주었다
- 3) 남편이 돌봐주었다
- 4) 멘토(후견인)나 이웃의 도움을 받았다
- 5) 교육 장소에 데리고 다녔다
- 6) 농협의 아이 돌봄을 시설을 이용했다
- 7) 기타(무엇:)

E03. 귀하께서는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교통편 문제를 주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1)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
- 2)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데려다주었다
- 3) 농협직원이 데려다주었다
- 4)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였다
- 5) 이웃이나 친구가 데려다 주었다
- 6) 기타(무엇:)

E04. 이 밖에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PART F.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F01.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F02. 귀하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독거(혼자 산다) 2) 부부 3) 부부 + 자녀
4) 부부 + 자녀 + 시부모 5) 부부 + 자녀 + 시부모 + 기타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태 설문조사

- 교육생 -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의 의뢰를 받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월

문의 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명예선임연구위원 (061-820-2345)
	농업·농촌발전연구부	김정승 연구원 (061-820-2160)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응답자 주소	시·군	읍·면	

SQ1	귀하는 농협의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조사 중단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은 농협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1) 서울/경기/인천권 2) 강원도 3) 충청권(충남, 충북) 4) 호남권(전남, 전북) 5) 영남권(경남, 경북) 6) 제주도

Part A.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A01. 귀하는 한국에 오기 전에 본국에서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경험이 전혀 없다 2) 경험이 약간 있다 3) 경험이 많다

A02. 귀하는 현재 농사일을 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A03. 귀하는 현재 농사일이 아닌 수입(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예(무엇:) 2) 아니오

Part B. 1:1 맞춤형 농업교육 과정 전반

B01. 귀하가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가족이 하고 있는 농사일을 돕고 싶어서
2)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기술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3) 앞으로 내 농장을 경영하고 싶어서
4) 다른 농장에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5) 한국 여성농업인을 만나서 개인적 상담을 하고 싶어서
6) 가족 및 이웃 주민의 권유로
7) 기타(무엇:)

B02. 귀하가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정착하고 농사일을 하는데 1:1 맞춤형 농업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B03. 귀하께서는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 1) 집안일이 많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 2) 교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 3) 어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
- 4) 후견인(멘토)와 의사소통하기 어려웠다
- 5) 배운 것을 실제 농사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 6) 기타(무엇:)

B04. 귀하께서는 올해(2020년)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았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B05.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1:1 맞춤형 농업교육 과정을 총 몇 연차(회)를 받았습니까?

총 ()연차

B06. 귀하께서는 1:1 맞춤형 농업교육 과정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2)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만족한다
- 5) 매우 만족한다

Part C. 교재 관련

C01.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교재와 관련하여 귀하가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 1)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 2) 용어가 너무 어려웠다
- 3) 일부 내용이 부실했다
- 4) 교재가 강의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 5) 교재의 분량이 너무 많았다
- 6) 기타(무엇:)

D03.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은 후에 귀하는 후견인(멘토)과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 1) 만난 적이 없다
- 2) 가끔 만났다
- 3) 자주 만났다

Part E. 가사, 탁아, 교통편 등

E01. 귀하께서는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집안일(가사)을 주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1) 모두 자신이 담당하였다
- 2)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도와주었다
- 3)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았다
- 4) 기타(무엇:)

E02. 귀하께서는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탁아(아이 돌봄) 문제를 주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냈다
- 2) 시부모님이나 친척이 돌봐주었다
- 3) 남편이 돌봐주었다
- 4) 후견인(멘토)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았다
- 5) 교육 장소에 데리고 다녔다
- 6) 농협의 아이 돌봄을 시설을 이용했다
- 7) 기타(무엇:)

E03. 귀하께서는 1:1 맞춤형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교통편 문제를 주로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 1)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
- 2)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데려다주었다
- 3) 후견인(멘토)이 데려다주었다
- 4)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였다
- 5) 이웃이나 친구가 데려다 주었다
- 6) 기타(무엇:)

E04. 이 밖에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PART F.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F01.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F02. 귀하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독거(혼자 산다) 2) 부부 3) 부부 + 자녀
4) 부부 + 자녀 + 시부모 5) 부부 + 자녀 + 시부모 + 기타

F03. 귀하의 결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 1) 베트남 2) 중국(조선족) 3) 중국(한족, 기타) 4) 필리핀
5) 일본 6) 캄보디아 7) 태국 8) 기타(어디:)

F04. 귀하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F0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 포함)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 졸업
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G06. 귀하의 한국어(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실력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못한다 2) 못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 하는 편이다
5) 매우 잘 한다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초점집단면접
(FGI) 토론 사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 관련 토론 사항

1. 해당 지역(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 교육(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1:1맞춤 농업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2. (교육생 대상) 주로 어떤 이유(동기)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1:1맞춤 농업교육)을 받게 되었습니까?
3. 현행 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1:1맞춤 농업교육)의 교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용이나 용어 등이 결혼이민여성의 눈높이에 적합한가?
 - 불필요한 내용이나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 현장에서 교재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 부교재의 활용 정도는?
4.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1:1맞춤 농업교육)의 교재를 주요 국적(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등)별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교육생 대상)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6.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교육생들은 가사와 탁아 그리고 교통편을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7. (교육 강사 및 업무 담당자 대상)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담당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8. 현행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9. 코로나19로 인하여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1:1맞춤 농업교육)을 받거나 시행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10.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농업 부문에서 현금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업 현장에서 결혼이민여성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과목(예를 들면, 과수 가지치기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교육생들 간의 모임이나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하여 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13. 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농업인센터와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14.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받고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농촌에 잘 정착하여 성공한 지역의 사례가 있으면 추천해주십시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 지침

심층면접 지침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중인 결혼이민여성 대상)

※ 인터뷰 전 설문지 및 녹음기의 상태를 확인

I. 도입

○ 라포 형성

- 인터뷰어에 대한 소개
- 날씨나 주변 환경 등 자유로운 이야기로 분위기 조성

○ 인터뷰 목적 소개

- 연구(조사) 목적에 대한 설명
- 인터뷰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 연구 참여 및 심층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한 허락 요청
- 비밀보장 및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과정이 2020년부터 단계별(기초·심화과정) 농업교육으로 개편되었음.

II. 질문 내용

☐ 인적사항, 일반적 특성 등

1. 연령, 학력, 출신 국가(국적), 현재 거주 지역, 한국 거주 기간, 가족 사항, 본국에서 영농 경험, 현재 영농 참여 여부, 한국어 실력 수준 등
2. 귀하는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3. 귀하가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동기)는 무엇입니까?

☐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 전반

4. 귀하가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정착하는데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귀하가 실제로 농사일을 하는데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5. 귀하가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6. 귀하는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을 몇 연차(회)나 받았습니까?

총 ()연차

귀하가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을 2연차 이상 받은 경우, 각 교육 과정에서 차별성이 있었습니까?

☐ 교재 관련

7. 귀하는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교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기초 또는 단

계별 농업교육의 교재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귀하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8.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교재를 주요 국적(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등)별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을 받으면서 부교재나 동영상 자료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사용된 부교재나 동영상 자료는 귀하의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교육방식 관련

10. 귀하가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집합교육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1. 귀하께서는 현행 단계별 농업교육의 현장 실습교육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단계별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교육 담당 강사 관련

13.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집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귀하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강사와 귀하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14.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집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 여성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15.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집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전문성과 성실성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까?

☐ 가사, 탁아, 교통편 관련

16. 귀하께서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집안일(가사)이나 탁아(아이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17. 귀하께서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교통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기타

18. 이 밖에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심층면접 지침

(1:1 맞춤 농업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중인 결혼이민여성 대상)

※ 인터뷰 전 설문지 및 녹음기의 상태를 확인

I. 도입

○ 라포 형성

- 인터뷰어에 대한 소개
- 날씨나 주변 환경 등 자유로운 이야기로 분위기 조성

○ 인터뷰 목적 소개

- 연구(조사) 목적에 대한 설명
- 인터뷰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 연구 참여 및 심층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한 허락 요청
- 비밀보장 및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II. 질문 내용

☐ 인적사항, 일반적 특성 등

1. 연령, 학력, 출신 국가(국적), 현재 거주 지역, 한국 거주 기간, 가족 사항, 본국에서 영농 경험, 현재 영농 참여 여부, 한국어 실력 수준 등
2. 귀하는 1:1맞춤 농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3. 귀하가 1:1맞춤 농업교육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동기)는 무엇입니까?

☐ 1:1맞춤 농업교육 과정 전반

4. 귀하가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정착하는데 1:1맞춤 농업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귀하가 실제로 농사일을 하는데 1:1맞춤 농업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5. 귀하가 1:1맞춤 농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6. 귀하는 1:1맞춤 농업교육 과정을 몇 연차(회)나 받았습니까? 총 ()연차
귀하가 1:1맞춤 농업교육 과정을 2연차 이상 받은 경우, 각 교육 과정에 차별성이 있었습니까?

☐ 교재 관련

7. 귀하는 1:1맞춤 농업교육의 교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1:1맞춤 농업교육의 교재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귀하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8. 1:1맞춤 농업교육의 교재를 주요 국적(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등)별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1:1맞춤 농업교육을 받으면서 부교재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사용된 부교재는 귀하의 1:1맞춤 농업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교육방식 관련

10. 귀하가 1:1맞춤 농업교육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1. 귀하께서는 1:1맞춤 농업교육의 ‘1:1 영농교육’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 담당 후견인 관련

12. 1:1맞춤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후견인은 귀하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했습니까? 그리고 후견인과 귀하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13. 1:1맞춤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후견인은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여성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14. 1:1맞춤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후견인의 전문성과 성실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까?

15. 멘토-멘티는 1:1 연계가 원칙이지만 최대 1:2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1:2 맞춤 농업교육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사, 탁아, 교통편 관련

16. 귀하께서 1:1맞춤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집안일(가사)이나 탁아(아이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17. 귀하께서 1:1맞춤 농업교육에 참가할 때 교통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기타

18. 이 밖에 귀하께서 1:1맞춤 농업교육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심층면접 지침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담당 강사 대상)

※ 인터뷰 전 설문지 및 녹음기의 상태를 확인

I. 도입

○ 라포 형성

- 인터뷰어에 대한 소개
- 날씨나 주변 환경 등 자유로운 이야기로 분위기 조성

○ 인터뷰 목적 소개

- 연구(조사) 목적에 대한 설명
- 인터뷰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 연구 참여 및 심층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한 허락 요청
- 비밀보장 및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과정이 2020년부터 단계별(기초·심화과정) 농업교육으로 개편되었음.

II. 질문 내용

☐ 인적사항, 일반적 특성 등

1. 연령, 학력, 농업·농촌 부문 경력,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여성 관련 경력,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경험 등
2.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동기)는 무엇입니까?

☐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 전반

3.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4. 귀하께서는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을 몇 연차(회)나 교육하셨습니까?
총 ()연차
귀하께서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을 2연차 이상 교육하신 경우, 각 교육 과정에 차별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5. 2020년부터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필수 과정과 선택과정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재 관련

6. 귀하께서는 현행 단계별(기초, 심화) 농업교육의 교재가 교육생들의 수준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현행 단계별 농업교육의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습

니까?

7. 귀하가 기초 및 단계별 농업교육 교재의 내용을 교육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8.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교재를 주요 국적(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등)별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을 하시면서 부교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교재를 사용하였습니까? 그리고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셨습니까?

☐ 교육방식 관련

10. 귀하가 기초 또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집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1. 귀하께서는 현행 단계별 농업교육의 현장 실습교육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단계별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타

13. 이 밖에 귀하께서 단계별 농업교육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요.

심층면접 지침

(1:1 맞춤 농업교육 담당 후견인 대상)

※ 인터뷰 전 설문지 및 녹음기의 상태를 확인

I. 도입

○ 라포 형성

- 인터뷰어에 대한 소개
- 날씨나 주변 환경 등 자유로운 이야기로 분위기 조성

○ 인터뷰 목적 소개

- 연구(조사) 목적에 대한 설명
- 인터뷰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 연구 참여 및 심층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한 허락 요청
- 비밀보장 및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II. 질문 내용

☐ 인적사항, 일반적 특성 등

1. 연령, 학력, 영농 경력, 주 작목,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여성 관련 활동,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경험 등
2.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1:1맞춤 농업교육을 맡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동기)는 무엇입니까?

☐ 1:1맞춤 농업교육 과정 전반

3.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1:1맞춤 농업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4. 귀하께서는 1:1맞춤 농업교육 과정을 총 몇 연차 교육하셨습니까?
총 ()연차
귀하께서 1:1맞춤 농업교육 과정을 2연차 이상 교육하신 경우, 각 교육 과정에 차별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동일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다연차에 걸쳐서 교육할 경우에 어떻게 차별화를 하였습니까?
5.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1:1맞춤 농업교육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 교재 관련

6. 귀하께서는 1:1맞춤 농업교육의 교재가 교육생들의 수준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 1:1맞춤 농업교육 교재의 내용을 교육생에게 가르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7. 귀하는 1:1맞춤 농업교육의 교재를 주요 국적(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등)별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1:1맞춤 농업교육을 하시면서 부교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교재를 사용하였습니까?

☐ 교육 내용 관련

9. 귀하께서는 ‘멘토 역량강화교육’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귀하께서는 ‘멘토-멘티 소통과정’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귀하께서는 ‘1:1 영농교육’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맞춤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타

12. 귀하께서는 1:1맞춤 농업교육 담당 후견인에 대한 현재의 처우(멘토 수당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이 밖에 귀하께서 1:1맞춤 농업교육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심층면접 지침

(농협중앙회, 농협 지역본부, 지역농협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담당자 대상)

※ 인터뷰 전 설문지 및 녹음기의 상태를 확인

I. 도입

○ 라포 형성

- 인터뷰어에 대한 소개
- 날씨나 주변 환경 등 자유로운 이야기로 분위기 조성

○ 인터뷰 목적 소개

- 연구(조사) 목적에 대한 설명
- 인터뷰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 연구 참여 및 심층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한 허락 요청
- 비밀보장 및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II. 질문 내용

☐ 인적사항, 일반적 특성 등

1. 연령, 학력, 농업·농촌 부문 경력,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여성 관련 경력 등
2.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를 맡게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 ()년 ()개월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과정 전반

3.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4.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 홍보 및 교육생 모집 관련

5. 귀하의 소속 기관에서는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대한 홍보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귀하의 소속 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대상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귀하께서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교재 관련

7. 귀하께서는 현행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교재가 교육생들의 수준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현행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교재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의 교재를 주요 국적(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등)별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방식 관련

9. 귀하께서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집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귀하께서는 단계별 농업교육의 현장 실습교육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교육 담당 강사 및 후견인 관련

12. 현재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담당 강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업교육 담당 강사를 확보하거나 관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현재 결혼이민여성 1:1맞춤 농업교육 담당 후견인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현행 1:1맞춤 농업교육 담당 후견인의 심사기준(농업종사기간, 농업의 전문성, 교육 참여의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맞춤 농업교육 담당 후견인을 확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예산, 성과지표 관련

14. 귀하는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관련 현행 예산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현행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에 대한 성과지표는 ‘교육 수료인원’과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타

16. 이 밖에 귀하께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 강혜정. 2009.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영농활동 실태 분석.” 『농촌경제』. 32(5): 133-152.
- _____. 2011. 『2011년 이민여성농업인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농협중앙회 농촌자원개발부.
- _____. 2012. 『2012년 이민여성농업인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농협중앙회 농촌자원개발부.
- _____. 2013. 『2013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농협중앙회 농촌자원개발부.
- 김복태. 2017.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3차 삶의 질 계획 부문별 성과한계 및 정책 과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복태·박성정·문미경·김돌순·최천근. 2016.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농림축산식품부.
- 김선정. 2018.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4(4): 33-54.
- _____. 2019.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 한국어 교육의 실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4): 51-68.
- 김선정·강현자. 2019.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요구분석 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진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연구』. 25(2): 857-876.
- 김이선·박신규·최진희·동제연·박대식·안석·김남훈. 2018.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일란. 2006.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창립 3주년 기념 2006년 추계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34-143.
- NICE 디앤알. 2019. 『2019년 농협중앙회 이민여성 교육만족도 조사』. 농협중앙회.
- NICE Research & Consulting. 2018. 『2018년 농협중앙회 이민여성 교육만족도 조사』.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7~2021)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안)』.
- _____. 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2020. 『2020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계획』.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2010~20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 농협경제연구소. 2010a. 『여성결혼이민자 기초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 _____. 2010b.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 농협중앙회. 2010~2019.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결과 보고』.
- 박대식·마상진·권인혜. 201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안석·김남훈·임지은. 2018.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다문화가

- 족과 귀농·귀촌인 대상 심층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경은. 2008.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성훈. 2012. “이러닝 활용 다문화교육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수요 분석 및 지원 방안.” 『정보교육학 회지논문지』. 16(1): 131-142.
- 양재영·박영진. 2020. “인센티브제도가 조직충성도와 업무성과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리조트 직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1): 87-101.
- 오승영. 2007. “농촌 다문화가족 생활농업기술보급 방안.”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9-60.
- 이순형·문무경·최연실·이숙정·정하나·우현경. 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방안』. 농림부.
- 장인봉. 2012. “조직내부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연구』 12(1): 99-118.
- 정은미·박대식·김우태. 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해숙·김이선·홍종명·최윤정. 2012.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효율화 방안』. 여성가족부.
- 조문식. 2010. “외식업체 종사원의 직무만족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관광경영연구』. 14(3): 205-223.
- 차윤숙·김세웅. 2016. “인센티브제도가 직업배드민턴 선수들의 직무배태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4: 691-705.
- 최승호. 2019.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요구분석.” 『인문사회 21』. 10(2): 701-712.
- 최주열. 2015.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2(1): 167-189.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2015. 『2015년 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농협중앙회.
- _____. 2016. 『2016년 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농협중앙회.
- _____. 2017. 『2017년 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농협중앙회.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4. 『2014년 결혼이민여성인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농협중앙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2017.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메뉴얼』.

<참고 인터넷 사이트>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https://mdis.kostat.go.kr/index.do>>. 검색일: 2020. 10. 22.